6 Focus
특별기획 세계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최성주 교수
개별면담학습을 통한 그들만의 교육과 연구전통은 무엇인지 들어본다.

동대신문

www.dgupress.com | The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 제1481호 2009년 (불기 2553년) 10월 12일 월요일

금주일언

현자는 양 극단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고, 감관과 대상의 접촉을 잘 알아서 탐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조차 비난할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보도 듣는 일에 팔리지 않는다.

숫다니파타 여덟편의 시

Cover Story **2009 대학평가, 동문들은 어떻게 보았나?**

지원 대폭확대 · 연구실적도 실명공개 필요

저조한 대학순위, 연구실적에 동문들 분노·허탈
동문들 "교수 연구 강화 위한 대책 촉구" 한 목소리

김교근
(경영학 65졸·대한교원공제회 전무)

우리대학의 순위가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 그리고 학교의 위상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본부에서 능력이 검증된 교수들을 많이 영입해야 한다.

또 외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학교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또한 학교 건물이나 시설 등 외부적인 크기만 키우기보다 실력이나 연구수준 등 내실을 다져야 한다.

윤명준
(행정70졸·전 수원지검 수사과장)

과거 명문사학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우리대학이 과거에는 비교하지도 않았던 여타 종합대학들과 비교당하는 것도 모자라 더 떨어진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게되서 매우 아쉽고, 불쾌한 느낌마저 든다. 재단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지만, 한동안 불교계의 갈등으로 인해 이행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느낀다. 교수 연구 부문의 하락도 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

교수들의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오영교 총장 부임 이후,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통해 대학이 전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재단지원이 지금과 마찬가지라면 결국 대학발전은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고종관
(인도철학79졸·중앙일보 기자)

타 대학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대학 재단의 지원은 이에 못 미치는 듯하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교수 연구부문이 낮은 원인에는 교수들의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일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수 연구 능력을 상승시키려면 대학본부에서 교수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구 실적이 떨어지는 교수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구능력이 입증된 실력있는 교수를 적극적으로 초빙해야 한다.

김승태
(공업경 83졸·진로산업 이사)

우리대학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교수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또 교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구비에 대한 지원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 특히 교수가 성과를 올린 것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리대학 이공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IT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석원
(한국화84졸 화가)

대학 내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현재 교수 연구 부문을 상승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실력이 좋은 교수가 영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능력이 뛰어난 교수들이 영입된다면 현재 학교에 있는 교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는 경쟁적인 분위기가 부족한 듯하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대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교수들을 초빙해야 한다. 또 우수한 교수가 많을 수록 그 대학의 학생들의 지적 수준과 면학 분위기 등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수한 교수를 초빙하기 이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제도가 뒷받침되야 할 것이다.

김헌영
(행정88졸·독립기념관 사무처)

오영교 총장 부임 이후 많은 혁신적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중 학생들의 교수 강의 평가결과를 국내 대학 최초로 공개하는 정책에 동국대가 앞서간다는 생각도 했지만 이번 교수 연구부문 순위를 보니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것 같다.

강의평가 공개로 인해 교수들이 강의 준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부문 평가를 끌어올리려면 강의평가 결과 공개와 더불어 교수들의 연구실적도 함께 공개를 해야 한다.

아니면 연구실적을 교수 재임용에 큰 비중을 두는 것과 교수평가 시스템에서 연구실적에 대한 비중을 늘린다면 타 대학보다 연구실적이 더 증가할 것 같다.

김성하
(컴퓨터공학 00졸·삼성 SDS 인사팀)

인사부서에 있으면서 몸소 느끼는 게 많다. 간부 50명 중 동국대 출신이 1명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재계에서 우리대학 출신들의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다.

또한 아쉽지만 우리대학 졸업자들의 스펙을 봤을 때 소위 말하는 SKY 출신들에 비해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우수한 인재를 대학에 유치하고 우수한 졸업생들을 배출해야 대학의 경쟁력도 강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학점을 쉽게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과 졸업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 대학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관련기사 4면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중간고사로 인해 다음주 신문은 휴간합니다.
1482호는 11월 2일 자로 발행되오니 독자 여러분들의 양해바랍니다.

본 사 사 령

◇임 정기자
▲오세진(공과대 화공생물공1)
▲김미로(사범대 국어교육1)

◇임 수습기자
▲최진아(경영대1)

-이상 10월 12일자

보리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유수스님
정토회 행자원장

한 청년이 물었다. "스님. 친구 한 명이 저를 험담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면서 저를 비난하고 욕합니다. 이 친구를 어떻게 대하면 됩니까?"

스님이 답하기를,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한다. 청년이 어리둥절해 하면서 "스님, 제가 화를 낸 것이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하고 다시 물었다. 또 답하기를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한다. 그 청년의 말이 "참 답답하시네요. 친구가 나를 비난을 해서 친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스님은 완전히 동문서답하십니다."한다. 그런데 스님이 또 답하기를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하니, 청년 눈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모습이었다. '아! 친구의 말에 내가 흔들렸구나. 친구를 고치려고 하고, 친구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친구가 나를 비난한다고 생각했구나. 친구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구나, 고쳐야지' 했거나 '큰스님께서 법을 일러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구나. 내 마음속에 화가 나 있었구나.' 이렇게 돌이켜지면서 청년은 마음이 맑아지고 편안해졌다.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애인이 없어서, 사업에 실패해서, 학점이 좋지 않아서, 교수님이 꾸중을 해서, 부모님이 혼을 내서 내가 괴로운가? 괴로움이 상대로부터 오는 것일까?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친구의 말을 듣고 '참 옳은 말이구나' 하거나 '큰스님께서 나에게 지적을 해 주시는구나' 한다면 그 친구의 비판은 훌륭한 법문이 된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친구가 틀렸어. 그 말은 옳지 않아. 그는 나쁜 사람이야' 하고 시비하니 친구가 미워지고 마음에 화가 나고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다. 모든 문제는 다 마음이 일으킨다는 것은 마음이 비를 내리게 하고, 물을 흐르게 하고, 태양이 돌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옛 성인이 말씀하시듯 한 생각 집착하면 중생이요, 한 생각 집착 놓으면 부처이라고 하는 것이다.

친구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지 않는 이야기를 친구가 하니 친구가 잘못되어 보인 것이다. 친구 때문에 마치 내가 화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내면에서 내가 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내가 일으킨 시비요, 화요, 괴로움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보라.

금주의 동대신문 Hot Issue

3 약학대학 유치 본격 추진 시동
4 대학평가 발표 그 이후
5 2009 Home Coming Day
6 해외대학 벤치마킹 리포트 - 영국 런던 UCL
8 동국 예소리 창단 공연
12 가을축제 화보

풍성한 10월

동국인 PRIDE 제고를 위한 가을 EVENT

동불 연꽃제

일시 : 10. 12(월) ~ 10. 13(화).
장소 : 팔정도 주변.
내용 : 불교도인이 하나가 되는 불교 축제.

캠퍼스 연인 초청 갈라 콘서트

일시 : 10. 28(수) 12:00 ~ 13:00.
장소 : 중앙도서관 옥상정원.
내용 : 캠퍼스 커플 초청 가을 음악회.

Clean Dongguk Campaign.

일시 : 10. 29(목) ~ 30(금).
장소 : 학생회관 및 교내 전 지역.
내용 : 학생 자치공간 청소 및 게시판 정리

103년의 성상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 동국대학교가 2009 가을을 맞아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합니다. 10월 7일과 8일 성황리에 개최된 동연제와 목멱가요제를 시작으로 10월 10일에는 1천여명의 동문 선배들을 모시고 모교 방문행사인 2009 HomeComing Day를 개최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모교를 방문하신 선배님들에게는 달라진 우리대학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후배들과의 정겨운 시간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서늘해진 가을 날씨만큼 그리고 한껏 높아진 하늘 아래 목멱산 기슭에서 흘러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10월의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자랑스런 동국인임을 이번 행사를 통해 모든 동국인이 함께 느꼈으면 합니다. 학내 교수님과 동문, 학생, 직원 들의 참여속에 따뜻한 우리 모교, 우리 마음속의 고향 동국대학교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학생서비스팀

'화합의 한걸음' ○…지난 8일 구성원의 화합을 위한 남산걷기한마당이 개최됐다. 걷기한마당은 오후 2시 대운동장에서 출발해 반환점인 와룡묘에서 다시 대운동장으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동악, 젊음의 끼로 물들다

동연제, 목멱가요제 등 가을 축제 성황리에 종료

동아리연합축제(이하 동연제), 목멱가요제, 남산걷기한마당 등의 축제(祝祭)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팔정도와 만해광장,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동연제는 주간전시와 야간행사로 나뉘어 진행됐다. 주간전시는 캐리커쳐, 스피드킹을 찾아라 등의 이벤트로 구성됐다. 각 동아리는 이벤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고 부채와 같은 공예품을 팔기도 했다. 야간행사는 OPUS, MASIC 동아리 등의 공연과 초대가수 공연으로 꾸며졌다.

또 8일에는 동국인의 화합을 위한 남산걷기한마당과 동악 최고의 명가수를 뽑는 목멱가요제가 개최됐다. 학생서비스팀이 주관한 남산걷기한마당은 학내 구성원들의 화합을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교 총장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산걷기한마당은 오후 2시 대운동장에서 출발해 반환점인 와룡묘에서 다시 대운동장으로 돌아오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걷기 한마당 행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행운권을 배부하고 대운동장에서 추첨을 통해 학생 50명에게는 장학금 10만원, 10명에게는 충무아트홀 공연티켓을 주고 교수 및 교직원 5명에게는 자전거를 증정했다. 목멱가요제는 오후 6시 대운동장 특설무대에서 그 막을 열었다. 본선에 진출한 12팀의 경합(競合) 끝에 대상은 안준호 학생에게, 금상은 듀엣으로 참가한 김용곤(컴공3)과 정주현(컴공4), 은상은 김광식(사학4), 동상은 이슬이(컴공2), 인기상은 박형식(법)교수에게 돌아갔다. 또한 초대가수 애프터스쿨과 드렁큰타이거의 공연으로 가요제의 흥을 돋우었다. 한편, 오늘(12일)부터 내일까지 불교대가 주관하는 동불연꽃제가 팔정도에서 열린다.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김이분 보살, 송연훈 불교신자 기부

체교과 풋살 우승팀, 대한사회복지회에 상금 기부 및 봉사

최근 우리대학 학생들을 위한 불자들의 기부(寄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합천 해인사의 김이분 보살과 불교신자인 송연훈 씨(氏)가 기부금을 약정(約定)했다.

대외협력단에 따르면 김이분 보살은 불교종립대학인 우리대학에 1천만원의 기부를 약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이분 보살은 사후 자신의 시신을 일산병원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이분 보살과 더불어 해인사 불교 신자 2명 역시 시신을 기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이 기증한 시신은 향후 일산병원에서 연구 목적의 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송연훈 씨는 작고(作故)한 어머니가 모아뒀던 400만 원의 재산을 우리대학에 기부했다. 송 씨는 "평소 어머니께서는 돈을 모아 연말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곤 하셨다"며 "어머니께서 불교 신자이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았던 돈을 불교대학인 동국대에 기부하게 됐다"고 기부 취지를 밝혔다.

대외기획팀 변승재 계장은 "최근 불교 신자의 기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산병원 건설 당시 병원 기금을 기부했던 불교 신자들을 학교에 초청하는 등, 불교계 기부자들에 대한 다양한 예우 프로그램이 계기가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대학 체육교육과에서 개최한 ARES배 교내 풋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채재성 교수팀은 상금 30만 원을 대한사회복지회(이하 대사복)에 기부하기도 했다. 채재성 교수를 비롯한 7명의 학생들은 상금 기부와 더불어 지난 7일 대사복을 방문해, 하루 동안 봉사(奉仕) 활동을 실시했다. 이 날 봉사에 참여했던 남보윤 체교과 부학생회장은 "이번 우승을 계기로 봉사는 물론 기부까지 하게 됐다"며 "땀 흘려 받은 상금이 아이들의 양육비로 의미 있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로 기자 miro@dongguke.edu

컴공과 동창회, 장학금 450만원 전달

컴퓨터공학과 동창회가 제 8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총 3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150만원 씩의 장학금을 전달(傳達)했다.

제 8회 장학증서 수여식은 김승찬 장학회장과 컴공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원흥관 103호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장학생은 문수진(컴공4), 조봉진(컴공3), 조경일(컴공2)학생으로, 각각 1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수여식에서 김승찬 장학회장은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컴퓨터공학과는 2005년 동창 장학회를 설립한 이후 2006년 1학기부터 매학기 학생을 선발해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꾸준히 수여(授與)하고 있다.

이슬비 기자 beeya@dgu.edu

신종플루 확진환자 7명 완치 3명 격리

현재까지 학생서비스팀이 집계한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모두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서비스팀에 따르면 확진판정을 받은 학생 10명 중 7명은 이미 완치돼 격리 해제된 상태이고, 나머지 3명은 집에서 격리(隔離)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서비스팀 이천종 팀장은 "일부 학생들이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기다리는 중에 등교하는 경우가 있다"며 "더 이상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진 판정을 기다리는 중에는 등교를 삼가할 것"을 요청했다.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치료기간 및 격리(隔離) 해제 시까지 공결처리 된다.

또한 감염(感染)의심 학생들의 경우에는 병원 방문 시점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시점까지 공결(公決)처리 된다. 한편 학생서비스팀은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교내 전(全) 건물에 손세정제를 설치(設置)하고, 신종플루 예방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위생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학생서비스팀 관계자는 "현재 신종플루가 잠잠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지연 기자 ljy88918@dgu.edu

회전무대

Call Carnival

○…yeah~!
Let me introduce 학교축제!
It is real! It is comeback!
학교축제 바라봐 똑같은 주점에
학교축제 바라봐 연예인 초청에
카니발을 불러봐
축제행사 똑같고
카니발을 불러봐
쓰레기 쌓여있고
재작년, 작년, 올해 학교 축제
세 번만 가면 자연스레
식상함이 느껴져
진짜 대학축제 원하면
허 본좌를 불러봐, 롸잇나우~

워~워~워

○…희망이: 형아 형아~ 대학생되면 막 도서관에서 철학책 이런 어려운 책 보고 막 그러는 거양?
소망이: 당근이지, 대학생은 교양인이니깐 교양을 쌓기 위해 많은 교양서를 보고 그래~
절망이: 워~워~워~ 동국대 도서관 대출1위 추리소설 고려대는 해리포터! 부산대는 비뢰도~ 넌 어려서 아직 몰라 ~대학생의 판타스틱 무협 세계를 워 워 워
희망이: 싫어 대학교 가기 싫어!

독해2

○…난 이제 문화관 K식당 연어샐러드에 대해 환상 갖고 있는 동대생들 기대 다~ 깰 거야
특히 음식 나왔다고 허겁지겁 먹는 애들 잘 들어
너네 연어 샐러드에 이상한 비늘 나왔다고 그게 연어 비늘인 줄 알았지
근데 그거 연어 비늘 아니다! 잠자리 날개다
너네 작작 먹어라~! 독해~~

군면제개론

○…안녕하세요! "난 이렇게 군대 면제 받았다"의 저자 동국입니다
여러분, 군대 면제 받고 싶으세요?
면제가 안되면 공익근무라도 하고 싶으세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스텝 원! 우선 정형외과에 간다.
스텝 투! 멀쩡한 어깨를 수술한다!
병명은 습관성 어깨탈구라고 하면 돼요~
스텝 뜨뤼! 진단서를 제출한다!
그럼 아마 면제 혹은 공익근무를 하게 될 겁니다.
군대 면제 받기, 참 쉽죠~잉?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기간 :2009년 9월 14일 ~ 2009년 9월 30일

100만등 달기 기금

강춘애(서울/교수, 10만원) 김범중(서울/직원, 1만원) 김병호(서울/직원, 3만원) 김영재(경주/교수, 3만원) 백경임(경주/교수, 10만원) 이상설(불교신도, 1만원) 황순일(서울/교수, 5만원)

건학100주년발전기금

김계현(서울/직원, 10만원) 김도현(서울/교수, 5만원) 김정호(서울/교수, 5만원) 남경우(일반/기타, 20만원) 박래호(서울/직원, 1만원) 박초생(동문, 3만원) 삼정산업(주)(기업/재단, 5만원) 서은숙(서울/교수, 5만원) 손인수(서울/교수, 5만원) 엄지운(동문, 2만원) 이원덕(서울/교수, 5만원) 이현정(불교신도, 5만원) 전병건(서울/직원, 5만원) 정수완(서울/교수, 5만원) 조성혜(서울/교수, 5만원)

단위기금

(주)경주귀빈여행사(기업/재단, 5만원) (주)순소프트코리아(일반/기타, 10만원) (주)승진보험대리점(동문, 3만원) (주)유비(기업/재단, 10만원) 감포은정횟집(기업/재단, 5만원) 강변굴국밥(기업/재단, 10만원) 강태호(경주/교수, 5만원) 건설유리(드림건설)(기업/재단, 5만원) 경주꽃집(일반/기타, 5만원) 경주원룸(일반/기타, 10만원) 경주한우셀프식육식당(동문, 5만원) 계경목장(기업/재단, 10만원) 고순희(불교/기타, 5만원) 국시집(기업/재단, 7만원) 권달영(동문, 1만원) 귀하한정식(기업/재단, 5만원) 금강원룸(일반/기타, 10만원) 김경호(경주/직원, 5만원) 김기호(경주/교수, 1만원) 김명숙(동문, 1만원) 김문영(동문, 1만원) 김병욱(동문, 2만원) 김보성(경주/교수, 1만원) 김복순(경주/교수, 5만원) 김상겸(서울/교수, 5만원) 김성장(동문, 2만원) 김수진(경주/교수, 1만원) 김순(경주/교수, 1만원) 김순준(동문, 1만원) 김신호(동문, 1만원) 김연정(학부모, 2만원) 김영기(경주/직원, 5만원) 김영석(일반/기타, 1만원) 김영성(경주/교수, 1만원) 김영희(경주/교수, 2만원) 김용배(학부모, 1만원) 김용태(서울/교수, 1만원) 김응기(경주/교수, 84만원) 김인홍(경주/교수, 2만원) 김재훈(동문, 1만원) 김종필(서울/직원, 10만원) 김종형(동문, 5만원) 김혜성(학부생, 1만원) 김혜순(경주/교수, 20만원) 김호창(경주/교수, 1만원) 다보아통신(동문, 5만원) 단감농원할매칼국수(기업/재단, 10만원) 대양기획-정화인쇄소(기업/재단, 15만원) 도솔마을(기업/재단, 5만원) 도영현(불교신도, 1만원) 동남종합상사(기업/재단, 5만원) 동아광고사(기업/재단, 5만원) 류기형(경주/교수, 1만원) 류인수(경주/직원, 6만원) 문희영(동문, 1만원) 박병국(동문, 1만원) 박병찬(경주/교수, 1만원) 박승용(동문, 1만원) 박승윤(경주/교수, 1만원) 박원배(동문, 1만원) 박은주(동문, 1만원) 박임관(동문, 2만원) 박재원(일반/기타, 1만원) 박정배(경주/교수, 1만원) 박종철(기업/재단, 3만원) 박지영(대학원/기타, 1만원) 박지원(학부생, 1만원) 박충건(일반/기타, 1만원) 박호준(동문, 1만원) 반도식당(학부모, 5만원) 배영환(일반/기타, 10만원) 백리향(기업/재단, 10만원) 백설향(경주/교수, 10만원) 벽선원룸(일반/기타, 10만원) 부성식당(기업/재단, 10만원) 삼성숯불갈비식당(학부모, 5만원) 서라벌찰보리빵(기업/재단, 5만원) 석장손두부집(기업/재단, 5만원) 설윤희(동문, 5000원) 세진꽃종합화훼판매장(기업/재단, 10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원) 손지숙(동문, 1만원) 신경란(동문, 1만원) 신광택(경주/직원, 1만원) 신도리코 경주OA(기업/재단, 10만원) 신라CC골프연습장(기업/재단, 10만원) 신윤섭(일반/기타, 2만원) 신혜경(경주/교수, 1만원) 신흥광고아크릴(기업/재단, 10만원) 심규박(경주/교수, 5만원) 아이맥스시스템(기업/재단, 5만원) 안성양푼돼지갈비찜(일반/기타, 10만원) 양남대구할인마트(동문, 5만원) 어림지해장국(기업/재단, 5만원) 연미불(동문, 5만원) 영광도서(기업/재단, 10만원) 영덕횟집(기업/재단, 10만원) 예명광고기획(기업/재단, 10만원) 옛날집밥상(기업/재단, 5만원) 오세찬(동문, 1만원) 오원옥(경주/교수, 2만원) 요석궁(기업/재단, 5만원) 용강꽃나라(기업/재단, 5만원) 용담매운탕(기업/재단, 5만원) 우성열(일반/기타, 1만원) 우정일식(기업/재단, 5만원) 원풍식당(기업/재단, 20만원) 월강(기업/재단, 10만원) 유재중(동문, 20만원) 육부촌(기업/재단, 10만원) 윤광수(일반/기타, 1만원) 윤광태(경주/직원, 2만원) 윤종원(동문, 20만원) 윤해숙(동문, 1만원) 이가아구촌(기업/재단, 10만원) 이관(경주/교수, 1만원) 이동욱(경주/교수, 1만원) 이득원(동문, 5만원) 이락우(동문, 1만원) 이미애(경주/교수, 2만원) 이성주(학부생, 1만원) 이수동(일반/기타, 1만원) 이승철(동문, 1만원) 이영경(경주/교수, 5만원) 이영실(경주/교수, 1만원) 이영현(경주/교수, 5만원) 이원석(동문, 1만원) 이윤호(서울/교수, 5만원) 이은주(일반/기타, 3만원) 이종임(경주/교수, 1만원) 이중현(경주/교수, 1만원) 이펙스모아사무용가구(기업/재단, 10만원) 이현주(동문, 20만원) 이효철(일반/기타, 1만원) 인덕왕족발(일반/기타, 5만원) 임도균(동문, 1만원) 장마루(기업/재단, 10만원) 장세철(기업/재단, 10만원) 장영주(동문, 1만원) 장원숯불가든(기업/재단, 5만원) 장현수(동문, 3만원) 전병옥(동문, 10만원) 정경란(일반/기타, 1만원) 정관장홍삼성건점(기업/재단, 5만원) 정동현(서울/직원, 3만원) 정만영(학부모, 1만원) 정용범(동문, 2만원) 정용수(동문, 1만원) 정호근(경주/교수, 1만원) 정화송이순두부(기업/재단, 10만원) 정휘수(경주/교수, 1만원) 조정호(동문, 2만원) 진병길(동문, 2만원) 청하일식(기업/재단, 10만원) 초원삼계탕(기업/재단, 10만원) 최광임(학부모, 1만원) 최덕례(동문, 1만원) 최선우(동문, 3만원) 최성훈(동문, 3만원) 최영진(일반/기타, 5만원) 최진수(경주/교수, 1만원) 최진용(동문, 1만원) 최환호(동문, 3만원) 최효선(경주/교수, 1만원) 최희규(동문, 2만원) 충효상회(기업/재단, 5만원) 치키치키(동문, 5만원) 코모도호텔경주(기업/재단, 100만원) 큐신라(동문, 5만원) 퍼시스울산전시장(기업/재단, 10만원) 풍경(기업/재단, 5만원) 풍년새싹전주비빔밥(동문, 5만원) 하동엽(경주/교수, 1만원) 한영란(경주/교수, 2만원) 한재승(동문, 1만원) 한전참가자미회(기업/재단, 10만원) 한줄기손칼국수(기업/재단, 5만원) 함흥냉면(기업/재단, 10만원) 해암회식당(기업/재단, 10만원) 향전(일반/기타, 5만원) 허상현(경주/교수, 5만원) 헬스엔헬스(기업/재단, 5만원) 현대드림투어(기업/재단, 10만원) 현대자동차(성건점)(기업/재단, 5만원) 홍광표(경주/교수, 5만원) 홍아김밥(일반/기타, 10만원) 홍창은(동문, 2만원) 화산숯불(기업/재단, 10만원) 황지영(경주/교수, 1만원) 휴먼뱅크(주)(일반/기타, 5만원)

만원의 행복 기금

강병헌(불교신도, 1만원) 강선식(일반/기타, 1만원) 강태진(동문, 1만원) 강형철(대학원/불교, 1만원) 고흥수도암(사찰, 1만원) 공만식(동문, 2만원) 김동구(대학원/불교, 1만원) 김동욱(동문, 1만원) 김미경(불교신도, 1만원) 김미숙(서울/교수, 2만원) 김상애(서울/직원, 2만원) 김수현(동문, 2만원) 김옥자(불교신도, 30만원) 김유정(학부생, 1만원) 김재민(대학원/불교, 1만원) 김후곤(동문, 1만원) 남순연(불교신도, 1만원) 박군서(서울/직원, 2만원) 박금표(서울/교수, 1만원) 박미진(동문, 1만원) 박선영(불교신도, 1만원) 박일례(불교신도, 1만원) 박재희(불교신도, 1만원) 백성열(일반/기타, 1만원) 변순미(서울/교수, 2만원) 신상윤(일반/기타, 1만원) 양경인(동문, 1만원) 양석호(동문, 3만원) 양정모(동문, 1만원) 여영주(불교신도, 1만원) 우철희(동문, 3만원) 위희정(서울/직원, 1만원) 윤용일(동문, 1만원) 윤종목(동문, 1만원) 이권학(서울/직원, 2만원) 이문영(동문, 1만원) 이상훈(동문, 1만원) 이재우(서울/직원, 2만원) 이지현(불교신도, 1만원) 이현호(동문, 1만원) 장기복(서울/직원, 1만원) 조화숙(일반/기타, 1만원) 최봉림(동문, 1만원) 최원철(동문, 1만원) 하선숙(불교신도, 2만원) 하한기(동문, 1만원) 황정일(서울/교수, 2만원)

발전기금

구경도(일반/기타, 1만원) 권정희(일반/기타, 10만원) 김호성(서울/교수, 3만원) 나득영(경주/교수, 5만원) 박광호(서울/직원, 5만원) 박정극(서울/교수, 10만원) 박종배(서울/교수, 5만원) 변승재(서울/직원, 2만원) 송진원(동문, 1만원) 신병수(서울/직원, 3만원) 신하균(서울/직원, 3만원) 안우섭(경주/교수, 30만원) 이수경(경주/교수, 5만원) 이한구(경주/교수, 10만원) 정재민(동문, 100만원) 정재형(서울/교수, 10만원) 정필현(경주/교수, 5만원) 정혜련(스님, 1만원) 조경덕(일반/기타, 1만원)

일산불교병원 발전기금

김경탁(일반/기타, 3만원) 김도균(경주/교수, 5만원) 김운자(불교신도, 5만원) 김종필(경주/교수, 5만원) 노미숙(불교신도, 1만원) 박대용(동문, 1만원) 박태진(불교신도, 5만원) 성낙진(경주/교수, 5만원) 윤광옥(불교신도, 20만원) 윤영해(경주/교수, 5만원) 윤용대(불교신도, 3만원) 이규석(동문, 1만원) 이규옥(의료원/직원, 1만원) 이만(경주/교수, 1만5000원) 일현스님(스님, 10만원) 임선화(불교신도, 5000원) 제수호(동문, 5만원) 철은스님(동문, 2만원) 홍순아(불교신도, 1만원) 홍지수(불교신도, 1만원)

장학기금

(재)백운장학(기업/재단, 500만원) (재)성남장학회(기업/재단, 1539만9000원) (재)필정장학(기업/재단, 3600만원) (주)동부전력(기업/재단, 1만원) (주)선진엔지니어링(기업/재단, 300만원) (주)KT(기업/재단, 457만9000원) 강경숙(불교신도, 1만원) 강경자(불교/기타, 1만원) 강길주(일반/기타, 10만원) 강두찬(동문, 1만원) 강릉소방서(기업/재단, 107만2080원) 강미아(불교신도, 10만원) 강병흠(불교/기타, 5만원) 강선희(동문, 3만원) 강정문(불교/기타, 2만원) 강정숙(불교신도, 1만원) 강정자(불교신도, 2만원) 강정희(불교/기타, 1만원) 계전스님(스님, 20만원) 고국원(일반/기타, 10만원) 고권녀(동문, 2만원) 고완식(동문, 3만원) 고학배(동문, 1만원) 곽현철(일반/기타, 3만원) 구광모(동문, 3만원) 구형근(불교/기타, 1만원) 권금주(불교신도, 2만원) 권원대(동문, 2만원) 권은희(일반/기타, 2만원) 권정의(동문, 5만원) 권종진(동문, 1만원) 권혁군(불교신도, 3만원) 권혁복(동문, 10만원) 김갑기(서울/교수, 4만원) 김경남(동문, 2만2500원) 김경표(경주/직원, 5만원) 김경훈(불교/기타, 1만원) 김규헌(경주/직원, 1만원) 김규환(서울/직원, 3만원) 김기수(불교/기타, 2만원) 김기정(대학원/행정, 5만원) 김기홍(경주/직원, 1만원) 김덕희(동문, 1만원) 김도연(불교/기타, 1만원) 김동협(경주/교수, 10만원) 김명숙(일반/기타, 2만원) 김명실(동문, 5만원) 김명우(일반/기타, 5만원) 김무봉(서울/교수, 7만원) 김미경(서울/직원, 2만원) 김병완(동문, 2만원) 김봉주(서울/직원, 2만원) 김상유(서울/직원, 2만원) 김상일(서울/교수, 2만원) 김성규(경주/직원, 1만원) 김성중(서울/교수, 5만원) 김순영(서울/교수, 10만원) 김애주(서울/교수, 10만원) 김여진(동문, 2만원) 김연숙(불교신도, 2만원) 김영곤(경주/직원, 17만원) 김영국(경주/교수, 1만원) 김영민(서울/교수, 5만원) 김영수(경주/직원, 5만원) 김영수(동문, 1만원) 김영순(서울/교수, 30만원) 김영임(불교/기타, 1만원) 김영진(서울/직원, 3만원) 김영호(동문, 2만원) 김영희(경주/교수, 2만원) 김옥금(불교/기타, 1만원) 김옥녀(일반/기타, 1만원) 김은향(일반/기타, 5만원) 김은희(경주/직원, 2만원) 김응조(스님, 10만원) 김의창(경주/교수, 10만원) 김인홍(경주/교수, 2만원) 김장화(학부모, 5만원) 김재환(동문, 10만원) 김정연(서울/직원, 3만원) 김정연(스님, 5만원) 김정일(불교신도, 2만원) 김정자(불교신도, 1만원) 김정자(불교신도, 1만원) 김정희(불교신도, 1만원) 김종규(경주/직원, 10만원) 김종기(서울/직원, 2만원) 김종성(동문, 3만원) 김종오(불교/기타, 2만원) 김종윤(서울/직원, 6만원) 김종화(동문, 300만원) 김주호(동문, 2만원) 김주호(동문, 1만원) 김지나(동문, 5000원) 김진환(서울/직원, 5만원) 김창희(동문, 10만원) 김철용(경주/직원, 2만원) 김춘식(서울/교수, 2만원) ▶3면에 계속

약학대학 유치(誘致), 본격 추진 '시동'

천문우 단장 임명, 약학대학 설립 추진단 발족(發足)

우리대학이 서울대 전(前) 약학대학장 천문우 석좌교수를 약학대학 설립 추진 단장으로 임명해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약대 유치에 나섰다.

현재 우리대학은 '미래 우수약무(GPP)수행약사 양성 및 약학의 세계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약학대학 유치에 박차(拍車)를 가하고 있다. 약학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본부는 2005년 경기도 고양시에 1,000병상 규모의 의과대학 부속 일산병원과 한의학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을 설립(設立)했다.

더불어 우리대학은 일산병원 외에 경기 북부 지역 병원, 대형약국, 제약기업과 실습교육협약을 체결(締結)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일산 의생명과학캠퍼스 착공식을 갖고, 강의동과 산학협력관을 건립하기 위한 1단계 사업에 착수했다. 지하 1층, 지상 8층의 1만 5026㎡ 규모로 추진 중인 의생명과학캠퍼스에는 바이오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을 비롯해 약학대학을 설립할 예정이다. 우리대학이 약학대학을 유치할 경우 발생하는 기대효과는 이공계 우수 학생 유치, 약학 관련 연구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强化)다. 전략예산팀 유광호 과장은 "경기도 북부지역 인구가 300만 명에 이르는데도 아직 약대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대학의 약대 추진은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 "약학대 유치는 의료복합단지인 고양 메디클러스터에 국내·외 기업연구소, 벤처연구타운, 의료복지타운, 의료서비스 시설 등 바이오 관련 인프라가 배치되는 데 이점으로 작용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가 2011학년부터 경기지역에 배정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총 100명이다. 현재 약학대학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대학은 한양대(안산), 아주대, 가톨릭대(성심)등이다. 약학대 선정 결과는 오는 12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이지연 기자 ljy88918@dgu.edu

고향 같은 모교, "선배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문 화합 증진 위한 2009 홈커밍데이 지난 10일 개최

대외협력단이 주관하는 '2009 홈커밍데이' 행사가 지난 10일 만해광장에서 개최(開催)됐다. 홈커밍데이 행사는 전체 학과의 동문회 구축과, 동문들간의 화합을 증진(增進)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대외협력단이 매년 마련하는 행사다.

이번 홈커밍데이 행사는 '대학(원)별 만남의 장' 시간과 '화합 한마당 축제'의 시간으로 각각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 5시 20분까지 진행된 제 1부 행사에서는 각 대학원 및 학과 동문(同門)들이 각 단과대 대형 강의실에 모여 동문들간의 화합을 다졌다. 이날 불교대학에서는 불교학 동문회, 석인동문회, 불교대학 동문회, 성불상 황명 스님, 동립 동문회 등 모두 5개의 동문회가 각각 100만원씩을 모아 총 500만원의 기부금을 불교대 학생회, 불교대학원 학생회, 백상원, 혜광원 등에 전달했다. 또한 제 2부 '화합 한마당 축제'에서는 전 동문들이 만해광장에 모여 예소리 창단공연 등을 관람하고 만찬을 갖는 등 야외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5면

김미로 기자 miro@dongguk.edu

이민웅 명예교수 마르퀴즈에 등재

생물학과의 이민웅 명예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WHO'S WHO에 지난 29일 등재(登載)됐다. 이 교수는 면역기능이 높은 상황버섯과 차가버섯 같은 버섯 종류에 관해 국제연구를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등재됐다.

동악로에서

오세진 기자
viva5@dgu.edu

방치된 얼굴

최근 우리대학은 대학평가 결과, 국제화부문이 6단계나 상승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해외대학과의 교류협정, 영어강좌의 비율 증대 등 그간 대학이 국제화에 기울인 노력이 이뤄낸 성과다.

하지만, 이런 선전(善戰)에도 불구하고, 타 대학과 우리대학의 영문 홈페이지를 비교해보면 실상은 열악하다. 학사, 입학 등의 공지사항과 학교관련 뉴스가 게재돼야 할 Notice와 News Clipping에는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우리대학은 국문과 영문 홈페이지만을 운영하는데다 영문 홈페이지는 일부 학과만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홈페이지의 준비가 사실상 미비(未備)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번 대학평가에서 국제화부문이 강세(强勢)였던 타 대학들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화부문 1위를 차지한 한국외대는 영어, 프랑스어 등 14개 국어로 정보를 제공, 대학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외대 홍보실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외대 홈페이지 접속 시, 영문과 국문 홈페이지가 동시에 뜨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외국어 홈페이지 중 활성화돼 있는 영문 홈페이지 관리(管理)는 홍보실, 정보통신팀, 통번역원 등의 부서가 분담한다"고 밝혔다.

현재 2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외국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외대에 비해, 우리대학의 영문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6명이 전부다. 국제교류팀 신하균 팀장은 "현재 중문, 일문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지만 현 인력으로는 홈페이지의 개괄적 관리만 가능할 뿐 학과 홈페이지까지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대학평가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대학 국제화 부문의 발전은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우리대학 영문 홈페이지는 이미 개선작업에 들어가 11월 중순 오픈할 예정이다. 현 시점에서 국제화 부문에 대한 재정 및 인력이 확충되면 대외적 홍보 효과는 배가(倍加)될 것이다. 방치된 대학의 얼굴에 대해 관심(關心)과 지원이 절실하다.

취업시즌 맞아 각양각색 취업특강

우리대학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주제의 취업특강이 실시돼 학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쌍용 레미콘의 백한기 대표는 '성공과 행복의 공유 결합 인자'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 백한기 대표이사는 사회에서 바라는 인재상, 취업에 대한 자세와 사회인으로서 가져야 할 인성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우리대학 출신인 KBS 이정민 아나운서(광홍04졸)는 '여대생의 진로탐색과 경력개발'을 주제로 취업 성공비법에 대해 특강을 열었다. 특강에서 이 아나운서는 꿈을 키우고 이루는 법, 아나운서가 되기까지의 과정 등을 설명하며 자신의 아나운서 입사 시험 과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uDRIMS 감사시스템 가동시작

정보유출 등의 보안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

개인정보의 도용(盜用)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감사시스템이 11월 중순까지 uDRIMS 모든 시스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감사 시스템은 교직원이나 재학생 등 접근이 허가된 사용자가 uDRIMS에 있는 정보를 변경할 때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uDRIMS에 있는 총 139개 항목에 대해 접속한 날짜 및 시간 , 사용자 ID, IP주소, 작업내용 및 변경내용 등을 기록한다.

정보기획팀 문상국 과장은 "그간 uDRIMS에서 변경된 내용에 대한 중간기록이 없어, 정보유출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법학과 설립 60주년 기념 특강 개최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및 인사담당자강연

법과대학이 법학과 설립 60주년을 맞아 법학도의 진로탐색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모색하기 위한 특강(特講)을 개최한다. 현재까지 최효선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장과 이수성 전(前)국무총리의 특강이 진행된 상태다. 오는 15일에는 금융업 발전 전망과 취업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상국 중소기업은행 채용팀장이 특강을 진행한다. 다음달 5일에는 효성그룹 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제조업계 취업프로젝트라는 주제의 특강이, 19일에는 법치주의 사회의 주역으로 성공하기라는 주제로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특강을 연다.

총동창회 임원 위촉장 수여식

300여명 동문, 대학발전 위한 간담회도

총동창회 임원 위촉장(委囑狀) 수여식이 지난 7일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번 수여식에서 지난 8월 새로 선출된 이연택 총동창회장은 제 25대 총동창회 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수여식에는 이연택 총동창회장을 포함, 30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했다. 한편 위촉장 수여식 외에 동국 발전을 위한 동문들간의 간담회도 진행됐다.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은상

정성재, 김한별 학생 출품작 수상

교육과학기술부와 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 우리대학 공과대 학생의 작품이 거점센터별 1차 심사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정성재(전자4)학생과 김한별(전자4)학생이 출품한 '무선 USB장치를 위한 초소형/다중대역 안테나'이다. 이 작품은 교내 Capstone Design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아, 이번 경진대회에 우리대학 수상후보작으로 출품됐다. 한편 우수작품 최종 심사는 오는 8일 예정이다.

▶ 2면에서 계속

장학기금

김태형(서울/직원, 2만원) 김태형(동문, 1만원) 김학원(서울/직원, 3만원) 김한(서울/교수, 5만원) 김한승(불교/기타, 1만원) 김해동(불교/기타, 2만원) 김현우(불교/기타, 1만원) 김현태(불교신도, 2만원) 김현호(동문, 5만원) 김형목(동문, 3만원) 김형욱(경주/직원, 1만원) 김혜경(불교신도, 2만원) 김홍태(학부모, 3만원) 김희배(동문, 3만원) 김희선(동문, 244만원) 남원식(경주/직원, 1만원) 남진스님(불교/기타, 10만원) 노동영(경주/직원, 1만원) 노헌균(서울/교수, 5만원) 도안스님(스님, 2만원) 도원철강(주)(기업/재단, 10만원) 동경금속(주)(기업/재단, 30만원) 류변성(서울/직원, 5만원) 문선아(일반/기타, 2만원) 문영옥(불교신도, 1만원) 문지훈(불교/기타, 2만원) 문진성(경주/직원, 1만원) 문희경(일반/기타, 1만원) 문희정(일반/기타, 1만원) 민병기(동문, 1만원) 민은기(불교신도, 2만원) 민준석(경주/직원, 3만원) 민창식(서울/교수, 5만원) 박갑선(일반/기타, 2만원) 박경준(서울/교수, 2만원) 박광현(서울/교수, 2만원) 박기린(경주/직원, 1만원) 박득현(경주/직원, 3만원) 박만규(서울/직원, 2만원) 박만성(동문, 3만원) 박명관(서울/교수, 5만원) 박민서(동문, 3만원) 박사빈(동문, 5만원) 박상관(서울/직원, 10만원) 박상철(대학원/일반, 1만원) 박서진(서울/직원, 3만원) 박선옥(불교/기타, 1만원) 박성필(동문, 1만원) 박승준(동문, 1만원) 박옥희(일반/기타, 1만원) 박윤희(서울/교수, 5만원) 박은철(동문, 5만원) 박재준(동문, 3만원) 박정옥(동문, 5만원) 박정효(불교/기타, 1만원) 박종심(불교/기타, 2만원) 박종훈(서울/교수, 10만원) 박종휘(경주/직원, 1만원) 박종희(경주/교수, 5만원) 박주연(동문, 1만원) 박지연(대학원/일반, 1만원) 박지현(일반/기타, 5만원) 박진수(동문, 3만원) 박진호(일반/기타, 2만원) 박춘재(동문, 2만원) 박해구(경주/직원, 10만원) 박혁상(서울/직원, 2만원) 박형재(동문, 1만원) 방중혁(서울/직원, 3만원) 배성원(일반/기타, 1만원) 백경선(서울/직원, 5만원) 백락관(경주/직원, 1만원) 백봉명(불교신도, 1만원) 백설향(경주/교수, 10만원) 백승우(동문, 2만원) 법상스님(불교신도, 5만원) 법안스님(불교/기타, 10만원) 법의스님(스님, 10만원) 변민우(서울/직원, 3만원) 변영걸(일반/기타, 1만원) 보성스님(스님, 350만원) 생활협동조합(기업/재단, 734만원) 서강(동문, 2만원) 서말순(불교신도, 1만원) 서병화(일반/기타, 20만원) 서보현(일반/기타, 10만원) 서오희(동문, 1만원) 서은숙(서울/교수, 10만원) 서재덕(동문, 2만원) 서정윤(동문, 1만원) 서혜원(불교/기타, 5만원) 석광열(경주/직원, 5만원) 석정미래재단(기업/재단, 150만원) 선빈스님(스님, 3만원) 선승규(일반/기타, 1만원) 선우진(동문, 3만원) 선호스님(스님, 2만원) 성낙주(동문, 2만원) 성본스님(경주/교수, 20만원) 손세호(경주/직원, 3만원) 손희주(동문, 5만원) 송관수(동문, 20만원) 송산장학재단(기업/재단, 200만원) 신기훈(서울/직원, 5만원) 신영애(일반/기타, 3만원) 신용국(일반/기타, 2만원) 신용재(동문, 3만원) 신지형(서울/직원, 4만원) 신창균(불교/기타, 2만원) 신흥묵(경주/교수, 60만원) 심건식(일반/기타, 1만원) 심익섭(서울/교수, 3만원) 안민기(동문, 1만원) 안선신(서울/교수, 10만원) 안현정(동문, 1만원) 양명숙(불교/기타, 2만원) 양선경(동문, 5000원) 양성웅(서울/직원, 3만원) 엄재석(동문, 2만원) 예영자(불교신도, 1만원) 오원석(동문, 2만원) 오원옥(경주/교수, 2만원) 왕선자(불교/기타, 3만원) 우왕기(동문, 50만원) 우철희(동문, 2만원) 유광호(서울/직원, 3만원) 유시규(서울/교수, 5만원) 유영혜(불교/기타, 2만원) 유임하(동문, 2만원) 유정숙(동문, 1만원) 유진(서울/직원, 3만원) 유한림(서울/직원, 3만원) 유흔우(서울/교수, 5만원) 윤광태(경주/직원, 1만원) 윤금숙(일반/기타, 2만원) 윤동규(서울/직원, 5만원) 윤법안자(은하사)(스님, 10만원) 윤옥송(불교신도, 2만원) 윤원석(서울/직원, 4만원) 윤재웅(서울/교수, 3만원) 윤종환(동문, 1만원) 윤진아(경주/직원, 1만원) 윤탁(일반/기타, 2만원) 윤해운(동문, 2만원) 이강석(경주/직원, 10만원) 이경(동문, 3만원) 이경남(불교/기타, 5만원) 이경지(동문, 5000원) 이권학(서울/직원, 5만원) 이근학(불교신도, 2만원) 이낙영(동문, 1만원) 이남희(일반/기타, 1만원) 이대석(기업/재단, 20만원) 이대원(경주/교수, 12만5000원) 이만희(서울/교수, 2만원) 이명복(경주/교수, 1만원) 이미숙(불교/기타, 1만원) 이미애(경주/교수, 2만원) 이병제(대학원/불교, 3만원) 이상기(경주/직원, 10만원) 이상득(경주/직원, 2만원) 이상미(불교/기타, 1만원) 이상병(경주/직원, 5만원) 이상윤(경주/직원, 1만원) 이상익(동문, 1만원) 이상진(동문, 3만원) 이상진(불교/기타, 1만원) 이상철(일반/기타, 5000원) 이석순(불교/기타, 2만원) 이선진(동문, 2만원) 이성민(일반/기타, 1만원) 이성연(동문, 2만원) 이성엽(동문, 10만원) 이수창(불교/기타, 11만원) 이승규(동문, 1만원) 이승남(서울/교수, 2만원) 이승주(일반/기타, 2만원) 이승진(동문, 2만5000원) 이시연(일반/기타, 2만원) 이영섭(서울/교수, 3만원) 이영심(불교/기타, 1만원) 이영채(불교신도, 5만원) 이옥연(일반/기타, 1만원) 이용수(경주/직원, 1만원) 이우헌(기업/재단, 100만원) 이원걸(동문, 5만원) 이원재(경주/직원, 2만원) 이유기(서울/교수, 2만원) 이윤목(불교신도, 1만원) 이익성(서울/직원, 7만원) 이재명(일반/기타, 3만원) 이정애(불교/기타, 5000원) 이정일(경주/교수, 12만5000원) 이정훈(동문, 1만원) 이종대(서울/교수, 2만원) 이종하(동문, 1만원) 이주성(서울/교수, 3만원) 이중권(서울/교수, 10만원) 이중화(동문, 1만원) 이진균(일반/기타, 1만원) 이창무(동문, 5만원) 이창학(서울/직원, 3만원) 이태형(일반/기타, 2만원) 이태희(불교/기타, 3만원) 이한주(서울/교수, 4만원) 이현규(불교신도, 2만원) 이현욱(일반/기타, 1만원) 이효선(동문, 2만원) 익명(스님, 50만원) 인성스님(스님, 3만원) 일연스님(스님, 3만원) 임각균(동문, 3만원) 임경자(일반/기타, 2만원) 임계성(동문, 1만원) 임금희(불교/기타, 1만원) 임명수(경주/직원, 1만원) 임억만(불교신도, 1만원) 임종민(경주/직원, 1만원) 임종빈(동문, 2만원) 임지한(서울/직원, 2만원) 임태순(불교/기타, 1만원) 장동선(동문, 3만원) 장봉헌(동문, 3만원) 장세이(동문, 1만원) 장시기(서울/교수, 5만원) 장영우(서울/교수, 2만원) 장원철(동문, 3만원) 장원희(서울/교수, 5만원) 장해룡(경주/교수, 12만5000원) 전용수(일반/기타, 10만원) 전표원(일반/기타, 5000원) 정경섭(서울/직원, 5만원) 정도진(대학원/기타, 2만원) 정련스님(스님, 2500만원) 정병경(서울/직원, 3만원) 정병조(서울/교수, 10만원) 정병준(서울/교수, 2만원) 정성진(동문, 1만원) 정우영(서울/교수, 2만원) 정월임(불교/기타, 2만원) 정윤재(동문, 3만원) 정창근(서울/교수, 2만원) 정향란(경주/직원, 5만원) 정현스님(동문, 5만원) 정환국(서울/교수, 2만원) 조광래(일반/기타, 1만원) 조동식(일반/기타, 2만원) 조복현(동문, 3만원) 조순식(서울/직원, 3만원) 조용수(일반/기타, 2만원) 조원상(동문, 1만원) 조원왕(동문, 1만원) 조은경(일반/기타, 1만원) 조의연(서울/교수, 5만원) 조인숙(불교신도, 5만원) 조진열(동문, 3만원) 조한제(일반/기타, 1만원) 조현옥(불교/기타, 1만원) 조훈영(서울/교수, 3만원) 주경식(불교/기타, 2만원) 주두식(일반/기타, 2만원) 주현석(서울/직원, 2만원) 지경숙(불교/기타, 2만원) 지현스님(스님, 10만원) 진선국(불교/기타, 2만원) 차교성(경주/직원, 5만원) 차홍기(동문, 2만원) 채명식(동문, 2만원) 철은스님(동문, 5만원) 최경숙(일반/기타, 3만원) 최광순(일반/기타, 2만원) 최금순(불교신도, 5만원) 최기만(불교/기타, 5만원) 최낙복(동문, 3만원) 최부식(동문, 1만원) 최세진(동문, 100만원) 최수진(동문, 5000원) 최수호(경주/직원, 3만원) 최순호(기업/재단, 10만원) 최용환(불교/기타, 1만원) 최우석(서울/직원, 3만원) 최윤정(동문, 10만원) 최인숙(서울/교수, 5만원) 최정숙(서울/직원, 5만원) 최준혁(서울/직원, 2만원) 최칠환(불교신도, 2만원) 최태선(일반/기타, 1만원) 최해철(불교/기타, 2만원) 탁상민(서울/직원, 3만원) 하기복(동문, 1만원) 하성(경주/교수, 2만원) 하창호(동문, 1만원) 하한기(동문, 30만원) 한경미(일반/기타, 3만원) 한경윤(불교/기타, 1만원) 한기태(일반/기타, 5000원) 한만수(서울/교수, 2만원) 한영란(경주/교수, 2만원) 한영환(경주/교수, 12만5000원) 한원영(불교/기타, 1만원) 한인만(동문, 1만원) 한종수(불교/기타, 1만원) 한주식(일반/기타, 2만원) 한형인(동문, 2만원) 허남결(서울/교수, 10만원) 허진석(동문, 20만원) 현담스님(스님, 2만원) 형재희(동문, 5만원) 혜공스님(불교신도, 1만원) 홍둘이(불교/기타, 5만원) 홍봉철(일반/기타, 2만원) 홍선기(동문, 5만원) 홍성조(서울/교수, 3만원) 홍성조(동문, 1만원) 홍승현(서울/교수, 5만원) 홍인선(불교신도, 2만원) 황병걸(서울/직원, 5만원) 황옥자(경주/교수, 20만원) 황종연(서울/교수, 2만원) 황진웅(동문, 1만원) 황필기(일반/기타, 100만원) 황훈성(서울/교수, 5만원)

특정목적기금

(주)대우종합해사(기업/재단, 1만원) (주)로즈버드(기업/재단, 10만원) 공제학(동문, 3만원) 곽문수(동문, 1만원) 교재실(일반/기타, 5만원) 구대환(동문, 20만원) 구본덕(스님, 3000원) 권보드래(서울/교수, 5만원) 권성훈(동문, 1만원) 권영섭(경주/직원, 2만원) 권오윤(경주/교수, 1만원) 권유미(동문, 5000원) 권춘오(동문, 3만원) 권혁배(경주/직원, 2만원) 김경민(동문, 5만원) 김경환(일반/기타, 5000원) 김계현(서울/직원, 2만원) 김귀향(동문, 5000원) 김규헌(경주/직원, 1만원) 김근묵(경주/직원, 5만원) 김기흥(경주/직원, 1만원) 김덕자(동문, 4만원) 김도윤(일반/기타, 5만원) 김동규(동문, 20만원) 김문식(일반/기타, 20만원) 김복순(경주/교수, 10만원) 김상유(서울/직원, 3만원) 김상필(경주병원/직원, 2만원) 김선주(일반/기타, 200만원) 김성규(경주/직원, 2만원) 김수동(경주/교수, 10만원) 김연상(동문, 20만원) 김용호(동문, 20만원) 김유나(일반/기타, 5000원) 김은정(의료원/직원, 3000원) 김재문(경주/교수, 20만원) 김재홍(일반/기타, 1만원) 김재홍(일반/기타, 1만원) 김정국(동문, 20만원) 김정연(스님, 1만원) 김종필(동문, 20만원) 김진철(경주/직원, 3만원) 김창렬(경주병원/직원, 1만원) 김채환(서울/직원, 10만원) 김철순(동문, 20만원) 김철용(경주/직원, 1만원) 김춘추(동문, 20만원) 김형국(동문, 1만원) 김혜정(동문, 3만원) 김혜중(서울/교수, 10만원) 김희수(동문, 2만원) 나의영(동문, 1만원) 남원식(경주/직원, 1만원) 노동영(경주/직원, 2만원) 동국대구내사진관(기업/재단, 5만원) 롤앤롤(기업/재단, 5만원) 문진성(경주/직원, 1만원) 박갑식(대학원/행정, 1만원) 박경수(동문, 1만원) 박광호(동문, 20만원) 박권호(동문, 1만원) 박규협(동문, 1만원) 박기린(경주/직원, 1만원) 박문고(동문, 3만원) 박미경(동문, 1만원) 박상범(경주/교수, 3만원) 박상익(경주/직원, 2만원) 박순흠(경주/교수, 5만원) 박윤희(서울/교수, 5만원) 박정극(서울/교수, 10만원) 박종원(기업/재단, 20만원) 박종휘(경주/직원, 1만원) 박진희(서울/교수, 5만원) 박치만(경주/직원, 5만원) 박현환(동문, 2만원) 박환오(서울/직원, 10만원) 배건우(동문, 1만원) 배병국(경주/직원, 1만원) 배충남(동문, 5만원) 백락관(경주/직원, 1만원) 백용운(서울/교수, 5만원) 불교대학원CEO과정8기(동문, 500만원) 불교대학원CEO과정9기(동문, 500만원) 서병희(불교신도, 3만원) 서승삼(동문, 20만원) 성영석(동문, 20만원) 성채용(경주/직원, 3만원) 손동진(경주/교수, 5만원) 손을준(동문, 1만원) 손재영(서울/직원, 5만원) 송익균(경주/직원, 5만원) 신호갑(불교신도, 3000원) 심선숙(스님, 20만원) 안수현(학부생, 1만원) 알로컴(기업/재단, 5만원) 양현진(불교신도, 1만원) 오강희(경주/직원, 5만원) 오래복집(기업/재단, 10만원) 오소민(불교신도, 5만원) 오응천(동문, 10만원) 오정석(동문, 20만원) 오준철(불교신도, 5만원) 오현옥(경주/교수, 5만원) 유용범(동문, 5만원) 윤병관(동문, 20만원) 윤진아(경주/직원, 1만원) 윤진호(경주/교수, 5만원) 이경식(서울/직원, 10만원) 이경자(불교신도, 1만원) 이규욱(의료원/직원, 2만원) 이금정(불교신도, 10만원) 이기범(경주/직원, 2만원) 이기연(일반/기타, 3만원) 이남순(일반/기타, 1만원) 이만(경주/교수, 1만원) 이상경(동문, 1만원) 이상득(경주/직원, 4만원) 이상윤(경주/직원, 1만원) 이상조(일반/기타, 2만원) 이순철(동문, 20만원) 이승진(동문, 2만5000원) 이시영(경주/교수, 3만원) 이연정(동문, 1만원) 이영륜(동문, 20만원) 이영하(동문, 5만원) 이용수(경주/직원, 2만원) 이원재(경주/직원, 3만원) 이원희(대학원/언론정보, 500만원) 이인수(동문, 20만원) 이정임(경주병원/직원, 3000원) 이종두(동문, 1만원) 이지연(동문, 1만원) 이현정(경주/직원, 2만원) 이현태(동문, 1만원) 임명수(경주/직원, 2만원) 임종민(경주/직원, 1만원) 임현오(경주/직원, 3만원) 자선화(일반/기타, 1만원) 장동락(동문, 20만원) 장익현(경주/교수, 5만원) 장해룡(경주/교수, 2만원) 장혜리(학부생, 1만원) 전부중(동문, 20만원) 전영도(경주병원/직원, 1만5000원) 전우안(학부생, 1만원) 정각원(사찰, 270만4000원) 정경섭(서울/직원, 10만원) 정동형(일반/기타, 1만원) 정보영(경주병원/교수, 20만원) 정승채(동문, 10만원) 정안스님(스님, 2만원) 정영희(대학원/불교, 10만원) 정이선(경주병원/직원, 1만원 정준기(경주/교수, 10만원) 조복현(동문, 10만원) 조성용(동문, 2만원) 조영준(동문, 1만원) 조창우(경주/교수, 1만원) 조현서(불교신도, 3000원) 조현일(불교신도, 3000원) 조희영(서울/교수, 2만원) 진동원(동문, 1만원) 진혁진(서울/직원, 2만원) 진현성(불교신도, 10만원) 차미영(동문, 5000원) 최경원(일반/기타, 5만원) 최덕수(동문, 2만원) 최병완(동문, 5만원) 최상팔(동문, 20만원) 최원석(동문, 50만원) 최정화(경주병원/직원, 3000원) 최해수(동문, 2만원) 최호진(서울/직원, 3만원) 하경임(경주/교수, 5만원) 한강식육(기업/재단, 5만원) 한혜경(동문, 5000원) 홍보각(기업/재단, 10만원) 홍익표(동문, 20만원) 황토골(기업/재단, 10만원) 효신스님(대학원/불교문화, 10만원)

대학평가 발표, 교수 연구부진 둘러싼 논란 일어

연구지원 및 교수 연구실적평가 정책 강화 시급

재단 및 종단의 전폭적 재정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

이번 대학평가의 교수 연구부문 성적부진에 대한 책임여부를 두고 교수사회와 대학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발표되고 난 뒤 대학당국은 지난 28일부터 대학순위 향상(向上)을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28일에 있었던 '2009년 중앙일보 대학평가 분석 결과 보고'에서 중앙일보 대학평가에 대해, 우리대학 결과 분석, 타 대학과의 비교 분석, 원인(原因) 분석 및 대책 마련과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교수 연구부문 순위 저조현상 원인에 대해 교수들의 저조(低調)한 논문 실적을 들었다. 또한 교수 연구부문 순위 향상을 위해 학교차원의 연구지원 필요성, 교수들의 재임용 및 승진기준의 강화 및 정년보장 교원의 연구 실적향상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학평가에 관해 지난 2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단과대학별 연구실적 향상 방안 마련에 대해 단과대별 전체 교수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단과대별 교수회의에서 의결(議決)된 교수 연구능력 강화방안 및 지원요청사항을 오는 14일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15일부터 23일까지는 단과대별 대책 및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11월 초순 오영교 총장이 대학평가 종합대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수 연구부문 성적부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 교수들의 태도는 냉담(冷淡)하다. 문과대학 A교수는 교수 연구부문 성적부진에 대해 "교수들은 장기적 계획을 세워 논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다"며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교수들을 압박하는 학교 측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과대학 B교수는 "이번 평가 결과는 한마디로 참담(慘憺)하다"고 말했다. B교수는 연구부문의 성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승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정년보장 교수 비율이 높은 반면 젊은 교수의 비율이 타 대학보다 적은 것이 이번 결과가 저조한 이유 중 하나"라며 "스타급 교수의 영입 및 재직 교수들의 연구에 대한 성과급 제도의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학평가 결과를 바라보는 동문 및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동국미디어센터(http://www.donggukin.org)의 기사의견쓰기를 통해 아이디 '학부모'는 "교수의 임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다는 아니다"며 연구실적이 부족한 교수들을 비난했다. 덧붙여 '학부모'는 "교수연구부문의 결과는 정말 가관"이라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교수들은 스스로 나가게 하든지, 퇴출시켜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아이디 '제발'은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진 못할망정 언제까지 발목만 잡을 생각입니까?"라며 "SKY로 일컫는 대학들과는 달리 우리대학은 확고한 입지를 갖지 못하기에 교수들은 그들보다 두 배, 세배 이상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교수들의 분발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동국대학교 사이버 동창회(http://www.donggukjck.com)의 게시판에는 교수들의 연구실적 저조에 대해 학교당국 및 교수사회에 대한 원색(怨色)적 비판의 글까지 올라오고 있다.

한편, 대학본부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의 비율은 약 52%정도이다. 교수들의 직급별 논문수를 살펴보면 교수 직급 1인당 평균 국제저명 논문 편수는 0.15편이며, 부교수 0.17편, 조교수 0.24편, 연구전담 교수 1.4편으로 직급이 올라갈수록 한해 논문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교수 직급 1인당 논문실적을 살펴보면 논문실적이 0점인 교수는 총 71명으로 교수 직급의 34.4%로 집계됐으며 3년 연속 논문실적이 0점인 교수는 총 13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 중 2년간 논문실적이 0점인 교수는 총 72명으로 집계돼 교수사회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관해 교수들은 학교측의 연구지원이 부족하여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바이오시스템대학 C 교수는 "노후화된 연구 장비로 인해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이라며 "학교 차원의 대폭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학교당국의 연구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타 대학의 경우에도, 특히 대기업에 의해 재단이 바뀐 중앙대나 재단이 대대적인 지원을 펴고 있는 건국대의 경우 최근의 평가 상승 분위기를 이끄는 동력으로 충분한 지원을 꼽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대학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현재 재단 및 종단의 지원이 1년 예산의 10%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아 학교 재정의 약 80%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기부액이 늘어나긴 했으나 종단과 재단의 협조가 없이는 교수 연구지원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찾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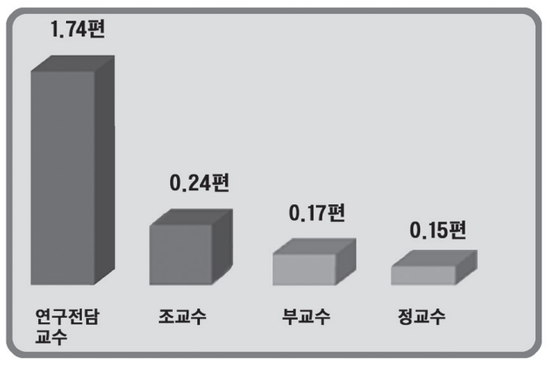
아이디 '동문'은 "조계종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재단 및 종단의 지원을 촉구(促求)하기도 했다.

이제 학교당국 및 교수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물으며 잘잘못을 가리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현재 떨어질 데로 떨어진 학교 명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한 네티즌의 의견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현재의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고 한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학교 명성에 맞는 연구실적을 위해 학교당국, 교수사회, 재단 및 종단은 서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講究)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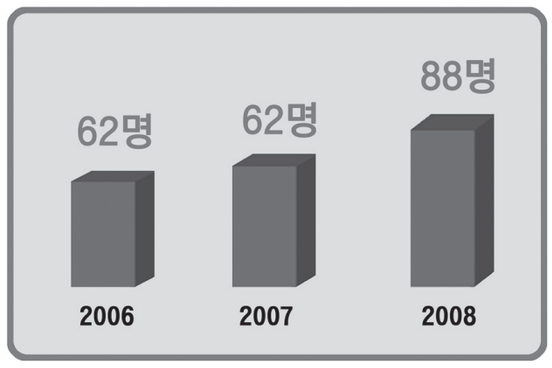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교수직급별 국제저명 논문수



자료출처 : 중앙일보 대학평가 분석자료

정년보장 교수중 논문실적 0점인 교수



자료출처 : 중앙일보 대학평가 분석자료

강정구 교수, 남북현대사에 대한 서적 출판

출판기념행사 및 저자와의 대화 진행

사회학과 강정구 교수의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 출판기념 저자와의 대화(對話)가 지난 8일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출판기념 행사에는 사회학과 조은 교수, 국문과 김태준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강 교수 외 출판 작업에 참여한 4명의 교수 또한 참석해 독자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출판된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는 제목 그대로 갖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도약해 온 남과 북의 현대사에 관한 서적이다. 이 책은 남과 북의 역사를 대등(對等)한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와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남북현대사를 추적한다.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족사 행로는 남과 북 어느 한 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공동주체가 되어 함께 이룩해야 할 공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도 남과 북의 역사를 대등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는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를 통해 통일시대 남과 북의 올곧은 이해(理解)와 올바른 역사행로(歷史行路)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한 이번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좀 색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특히 내용적인 면에서 남과 북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려고 노력한 점이다. 두 번째로는 다른 책과는 달리 역사, 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책이 구성된 점이다.

한편, 저자와의 대화는 사회학과 학생 두 명이 책을 미리 읽은 후, 짤막한 독후감을 발표하고 강 교수와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자와의 대화에서 허준기(사회학 07) 학생은 "다른 책이 연도별로 현대사를 설명한 것과는 달리, 이 책은 구조적인 사건을 해석해서 신선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미영(사회학 05) 학생은 "책을 읽으면서 세상이 더 넓다는 것, 그리고 세상사를 무조건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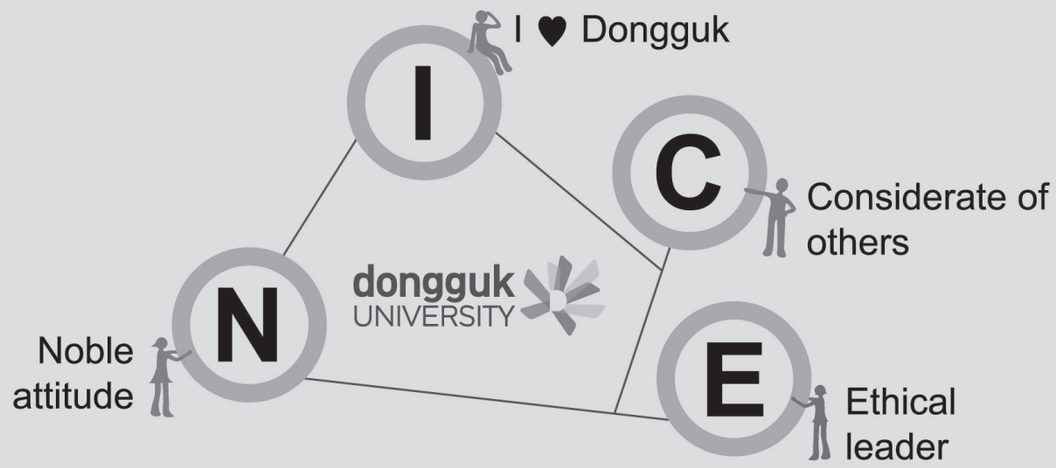
강 교수는 이날 저자와의 대화에서 "현재 미국은 현재 위상(位相)을 잃어가고 있고, 중국도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아직 위치를 명확히 세우지 못했다"며 "외부 간섭이 적은 이 시점에서 평화 통일(統一)을 위한 자주적 역량(力量)을 넓히는데 이바지하고자 이번 책을 저술하게 됐다"며 출판 의미를 설명했다.

김미로 기자 miro@dongguk.edu

Do you know D-Style?!

It's N.I.C.E!

D-Style은 Dongguk Style로
예의바른 행동과 진정으로 동국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양심적인 동국인,
이것이 바로 N.I.C.E.한 스타일의 동국인입니다



강의실 에티켓
1. 수업시작 5분전까지 입실해요.
2. 수업 중 휴대폰은 꺼놓거나 진동으로!
3. 교수님께 먼저 인사하기는 기본인거 아시죠?
4. 리포트 표절, 컨닝은 안돼요~ 안돼~ 절대금지!
5. 자신의 쓰레기는 가지고 나와야 진정한 동국인 ^^

도서관 에티켓
1. 휴대폰은 무음으로, 문자는 제발 자제해요.
2. 장시간, 무리한 자리 맡기는 밉상중의 밉상이에요.
3. 도서관 내에서 잡담하고 떠드는 강심장은 없겠죠?
4. 종이컵과 캔 등의 쓰레기는 휴지통으로~!
5. 노트북 자판소리와 MP3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볼륨은 낮추세요.

공중 에티켓
1. 바닥에 껌이나 침을 뱉지 마세요.
2. 정해진 흡연 구역에서만 흡연해요.
3. 화장실은 전 구역 금연 장소라는 것 아시죠?
4. 인쇄 컴퓨터에서는 인쇄만 해야 서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5. 교내에서는 자동차와 스쿠터 모두 안전하게 서행해요.

동화 · 동감 · 108리더스와 함께하는 N.I.C.E. 동국 캠페인!

20만 동문의 힘을 하나로 모은 한판 대동의 장(場)

2009 Homecoming Day 성료, 동국인 단결하는 계기 마련해

① 만해 광장에서 열린 홈커밍데이 2부 화합 한마당 축제 ② 불교대학 동문회에서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했다. ③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는 동문들 ④ 홈커밍데이의 피날레 불꽃놀이 ⑤ 만남의 기쁨을 사진으로 기념하는 사회과학대학 동문들

연어가 거센 물살과 폭포를 거슬러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대학 동문들도 자신을 사회에 한 발자국 내딛게 한 '제 2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2009 Homecoming Day(이하 홈커밍데이) 행사가 열린 지난 토요일, 캠퍼스는 그동안 캠퍼스를 그리워했던 동문들로 북적였다.

홈커밍데이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대학(원)별 만남의 장, 2부는 화합 한마당 축제로 구성됐다. 1부인 대학(별) 만남의 장은 동문들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과 학과별로 헤쳐 모여 해당 학과·단과대학의 현황과 비전 설명회와 간담회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이연택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이덕화, 이효정, 이경실, 최민식, 채시라 등 연예인 동문들과 구자선 택우주택 회장을 비롯한 정·재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문들도 모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 자네도 잘 지냈지?"

선후배 사이인 두 동문이 반갑게 악수를 나눈다. 바쁜 사회생활로 인해 서로 간에 자주 연락하지 못하다보니 반가움은 더하기만 한다. 동문들은 선·후배, 동기끼리 옹기종기 모여 학창시절의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모교에 남아 후학을 양성하는 동문 교수들, 현재 학교에 재학하며 선배들의 학풍을 이어받고 있는 후배들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약 1시간 동안 학과 행사를 진행한 후 2부 행사 전에는 동문들의 캠퍼스 투어가 진행됐다. 모교를 방문한 동문들은 학창시절 때와는 많이 변화한 캠퍼스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하고, 어느새 세월이 흘렀음을 몸소 느꼈다. 특히 동문들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옥상정원 '하늘마루'를 둘러보며 에코캠퍼스로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대학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다.

캠퍼스 투어를 마친 뒤 동문들은 2부 화합 한마당이 열리는 만해광장으로 향했다. 본 행사 시작 전에는 AJAX, 뭉게구름, Fearless Dawn 등 재학 중인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 흥겨운 공연을 마련했다. 공연을 마친 뒤에는 사회자의 소개로 화합 한마당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화합 한마당은 '나+너=우리', '소지품 빙고'란 주제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오영교 총장과 이연택 총동창회장의 축사, 만찬과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특히 축하공연은 초대가수 김흥국의 흥겨운 무대와 동문들의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7080 노래들로 꾸려져 동문들이 흥겹게 만찬을 즐길 수 있었다. 장시간 동안 만찬이 이어졌지만 동문들은 지친 내색 없이 선·후배, 동기들과 즐겁게 만찬을 즐겼다.

화합 한마당의 마지막은 교가제창과 불꽃놀이로 장식했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들을 바라보며 동문들은 '동국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하나됨을 느꼈을 것이다. **정웅재** 기자 wonder@dongguk.edu

"5달러 낙찰입니다"

"5달러요~ 5달러요~"
경매에 나서기엔 많이 부족한 돈..
하지만 동생에게 자전거를 꼭 사주고 싶어
소년은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차츰 소년의 마음을 알게 됐고..
보세요, 하나 둘 손을 내려 양보를 해주네요

자전거보다 더 소중한 사랑을 얻은 소년,
더불어 사는 법을 아는 멋진 사람으로 자라
더 넓은 세상에 따뜻함을 이어주겠죠?

마음을 열면 따뜻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posco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한국대학도 대학원생 활용해 튜토리얼(면담학습) 확대해야"

UCL 경제학과 최성주 교수 인터뷰

"영국에선 교육이 대학만의 몫이 아니다. 사회전체가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UCL 경제학과 최성주 교수는 영국 교육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다. 최성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얻었다. 그리고 2006년 UCL 경제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그는 임용되기 전, ESRC라는 영국 경제, 사회 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UCL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최 교수는 "ESRC와 같은 학술재단은 한국으로 보면 학술진흥재단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계열별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술재단이 있다. 이런 재단에서 받는 연구비가 대학 전체 예산의 30%정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교육, 연구의 몫이 대학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그는 "교육은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공성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영국인들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 역시 대부분이 국 공립이다"라고 말했다.

HEFCE(고등교육재정위원회)는 실제로 한 해 1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대학평가결과에 따라 국·공립대학에 분배한다. 감사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 공립학교 출신학생의 입학비율을 공시토록 하고, 저소득층 거주지 출신 학생을 선발할 경우 그 수에 따라 추가로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정부차원의 연구비지원은 투명성 확보뿐만 아니라 연구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UCL은 연구비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다. 최 교수는 "임용, 재임용될 때 대학과 교수가 계약을 맺는다. UCL은 계약에서 연구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온다. 이것이 교원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대학에서 이것이 미흡하다. 연구비 지원이 대학의 재정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UCL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를 지속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고등교육 사회 전체 몫이라는 인식 뿌리깊어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큰 역할
> 훌륭한 교수 초빙하는 것이 교육의 질 좌우

영국의 건물이 대게 그렇지만, UCL의 건물은 오래된 건물이 많아 보였다. 어디를 가든 조금씩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영국대학 내부에서도 교원숫자를 늘리는 대신 건물신축이나 연구비 지원에 예산을 쓰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최성주 교수는 이에 대해 "영국대학은 정부와 기업의 연구비 지원이 어느곳보다 활발하다. 그래서 교원의 확충과 건물신축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지는 않다"며 "하지만 UCL은 교육의 질에 신경 쓰려는 것 같다. 훌륭한 교원을 초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UCL 예산 지출의 60%는 각각 4천 명에 달하는 교원과 직원의 인건비다. 면담수업에 대해선 과제물에 대한 첨삭과 튜터들의 심화학습을 면담수업의 포인트로 꼽았다.

최 교수는 "면담수업은 매주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격주로 진행되는 면담수업도 있다. 경제학과의 경우, 교수가 정규수업에서 내줬던 문제들을 튜터들이 같이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튜터들이 정규강의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선 깊이 있게 가르쳐주는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첨삭지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면담수업은 첨삭제도가 생명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첨삭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고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학에서 면담수업이 가능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우선돼야 할까.

최성주 교수는 튜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원생을 늘리는 것이 필수라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원생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대학원생은 처우개선을 통해 수를 늘려야 한다. UCL은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인원이 큰 차이가 없다. 면담수업이 가능한 것도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을 튜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원 학생들이 면담수업의 튜터로서 나서면 훌륭한 강사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UCL에선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단체만도 수십 개다. 각 학술재단과 HEFCE(고등교육재정위원회), 정부기관, 동문 장학금 등으로 30%가 넘는 대학원생이 장학금을 받고 있다.

교육에 대해 사회 전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영국, 그리고 UCL. '배워서 남주기'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INTERVIEW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는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벤덤이 설립한 유서깊은 대학이다. 자유로운 학풍과 자율을 중시하는 연구풍토는 세계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런던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 대학들의 경쟁속에서 유니버시티 칼리지가 생각하는 그들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인지 유니버시티 칼리지를 찾아 그들의 생각과 그들만의 경쟁력을 자세히 취재했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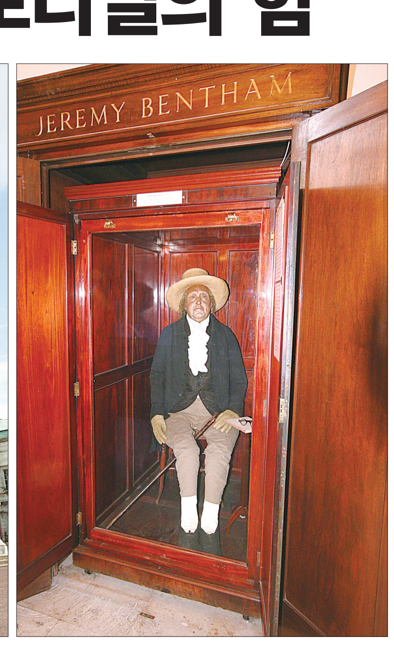
글싣는 순서

1. 일본 리츠메이칸 APU
2. 싱가포르 국립대학
3. 미국 컬럼비아 대학
4.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5. 미국 뉴욕대학
6. 일본 교토대학
7. 중국 베이징대학
8. 홍콩대학
9. 중국 칭화대학
10. 프랑스 파리 4대학
11. 일본 교토 불교대학

런던 = 정동훈 기자 gfd1226@dongguk.edu

동국미디어센터 특별기획 - 세계의 명문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4〉 영국 -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사람을 향하는 UCL 튜토리얼의 힘"



△ UCL의 본관 입구, 인본주의를 상징하듯 Portico(기둥으로 받쳐진 지붕이 있는 현관)는 그리스 양식으로 지어졌다. (왼쪽) UCL을 설립한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의 박제가 학교안에 전시되어 있다.(오른쪽)

벤담 인본주의 바탕한 학문공동체 College 문화, 면담수업의 근간
강의내용체크부터 학교적응도까지, 세심한 배려가 UCL인을 만든다

"The common end of every person's education is happiness"(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교육의 목표는 행복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레미 벤담이 한말이다. 벤담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행복을 위한 교육을 추구했다. 그러나 당시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은 국교도와 재력가들만을 위한 대학이었다.

벤담은 인종과 성별,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는 대학, University College London(이하 UCL)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행복을 위한 교육, 모든 사람을 향하는 교육이 UCL 설립의 목표였다. 벤담의 철학은 개교 200년을 앞둔 UCL에서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영국의 학문공동체 College문화

UCL의 정식 명칭은 University College London. College가 붙는 이유는 UCL이 런던대학교라는 대학연합체 중 하나의 대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대학의 근간인 학문공동체, College(이하 칼리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대학의 시초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다. 두 대학은 이미 12세기 설립됐다. 12세기 당시 교수와 학생은 대학캠퍼스를 중심으로 모여 살았다. 배우고자 했던 많은 학생들이 유능한 교수의 집 주변으로 이사를 왔다. 캠퍼스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배울 수 있길 원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숫자는 늘어났고 하나의 자치조직을 꾸릴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개개인이 집을 임대하던 방식에서 단체로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 수준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 영국에선 이들, 이 자치조직을 바로 칼리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학은 칼리지가 모여서 만들어진 University(종합대학)인 것이다. UCL 또한 이런 칼리지의 연합체다. 칼리지란 단어는 미국으로 넘어가 공동체라는 의미보다는 행정조직상의 의미로 사용됐다. 우리가 칼리지를 전문대학, 단과대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더욱 가까이서 함께 공부 하고자 무리를 지어 살게 된 학생과 그들을 이끄는 교수들. 칼리지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학습하는 그들의 공간이었다. 영국에서 교수와 학생의 관계가 끈끈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UCL힘은 사람을 향하는 면담수업

칼리지 문화는 대학의 시스템이 거대하고 복잡해지면서 Tutorial Class(이하 면담수업)로 이어졌다. 양적 변화 속에서도 학문공동체라는 영국 대학 교육만의 장점을 이어가려는 노력의 한 단면이다. 토론과 학습이라는 대학의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UCL교육의 힘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쏟는 면담수업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UCL의 면담수업을 간단히 말하면, 3~4명 정도의 학생이 Tutor(이하 튜터)에게 1:1로 지도를 받는 수업을 말한다.

학부과정이 3년인 영국에서는 각 학년 별로 면담수업이 다르다. 학과별로도 조금씩의 차이가 존재한다. 1학년 과정의 면담수업은 매주 1시간씩 열린다. 반면 2, 3학년의 면담수업은 2주에 1시간씩 배정돼 있다. 면담수업은 1학년에 집중돼 있다. 학부과정이 3년이기 때문에 1학년 과정의 적응도는 학부과정 전체의 학업성취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영국은 3학기제로 10월 초쯤이 1학기 개강이다. 개강을 하면, 정규 수업당 보통 3~4명의 학생에 한 명의 튜터가 배정된다.

수업은 대부분 정규수업시간에 내준 과제물이나 수업내용을 토대로 진행된다. 그러나 개강 첫 주와 두 번째 주는 예외다. 'Reading Week'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면담수업이 없다. 한 학기의 강의 내용을 충분히 예습해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주가 되면, 본격적인 면담수업이 시작된다. 면담수업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규강의의 이해도다. 면담수업의 첫 머리는 정규강의의 수업내용에 대한 체크부터 시작된다. 화공생물공학과 2학년 임진우 군은 "튜터는 항상 정규강의의 내용을 질문한다. 전공 강의의 이해도를 항상 체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정규강의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제물은 튜터와 함께 풀어본다. 전공의 정규수업 시간에 받은 과제물을 면담수업시간에 제출한다. 단, 같은 문제는 풀어보지 않는다. 비슷한 문제를 함께 풀며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이다. 수학과 신린 군은 "문제를 푸는 과정상에서의 실수를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도움이 됐다. 3학년이지만 문제를 들고 튜터를 찾아가는 일은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에세이 같은 경우, 교수의 첨삭이 뒤따른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첨삭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지적받고 고치는 작업이 면담수업을 통해 이뤄진다. 많은 학생들은 답보다 답을 찾는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면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학생들의 학교 적응 역시 튜터가 신경 쓰는 부분이다. 면담수업이 1학년 때 더 자주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학과 같은 경우, 학생들의 적응도를 살펴보기 위해 1학년 과정이 끝날 때마다 설문조사까지 한다고. 설문조사는 교수와 튜터, 교육과정, 부대시설 등의 만족도와 개선점 등을 담는다고 한다.

수학과 신린 군은 "유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 대학뿐만 아니라 영국문화에도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있어 학교적응이 수월했다"고 말했다. 면담수업뿐 아니라 지도교수제도마저 개점 휴업한 한국대학가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대학원생에겐 더욱 끈질긴 교수

UCL이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만큼 대학원 과정의 면담수업은 혹독하기 까지 하다.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배호 군은 교수들의 끈질김에 혀를 내둘렀다.

배 군은 "미국대학보다 UCL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석사과정부터 시작되는 교수와의 상시 면담수업이다. 1년간의 프로젝트를 짜고 담당교수가 정해지면 담당교수와 1주일에 한 번 미팅이 계속된다. 프로젝트에 의문이 생기면 교수가 먼저 면담을 요청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학부 3년보다 교수에게 수시로 문제점을 지적받고 토론했던 석사과정 1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UCL을 넘어, 영국교육의 핵심이라고 불리던 면담수업은 최근 폐지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지도교수 확보 등으로 재정 부담이 크고, 미국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연구역량강화와 연구시설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UCL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국대학들이 면담수업 폐지에 조심스럽다. 영국대학 고유의 장점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최성주 교수는 "대학들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중 하나다"며 "하지만 UCL이 면담수업을 놓지 못하는 것은 양적성장보다 중요한 교육의 질 문제가 면담수업에 달려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젊고 열정있는 20~30대 튜터들

UCL은 학부생이 만 2천여 명, 대학원생이 9천여 명으로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교수 숫자는 4천여 명으로 우리대학의 10배에 달한다. 교수 1인당 학생 숫자는 1대 5정도다. 면담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교수직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리고 연구전담 교수, 면담수업전담 교수로 구분돼있다. 면담수업은 면담수업전담 교수(college fellow)와 조교수들에 의해 이뤄진다. 면담수업은 대부분 2~30대의 젊은 교수들이 참여한다. 면담수업전담 교수들은 대부분 박사과정을 이수하는 대학원생이거나 연구원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으며 면담수업전담 강사를 겸하고 있다.

경제학과 최성주 교수는 "젊은 대학원생들이 면담수업에 강사로 나선다. 젊다보니 학생들과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토론한다"며 "대학입장에서는 유능한 강사를 발굴해내는 역할까지 가능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면담수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많아야 한다. 학생 3,4명의 등록금이라면 교수 1명의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 영국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정부가 분담했다.

정부의 충분한 투자와 투명한 관리

영국대학은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곤 모두 공립대학교다. 2008년 UCL 전체 예산 1조 3천억 원 중 3천 9백억 원이 정부의 지원금이다. 전체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대학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도 정부가 책임을 다한다. 정부는 대학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년 엄격한 대학평가를 시행한다. 또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대학당국에 학문수준을 지키는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영국 고등교육 기금위원회(HEFCE)에서 대학 평가 등을 통해 학사업무를 감사한다. 또한 예술·인문학연구위원회, 경제·사회연구위원회 등 각 학문분야별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학술기관이 분야별로 예산을 지원한다.

대학별 평가내역은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구성, 교수방식과 학습평가, 학생의 학업능력과 학업성취도, 학생 복지 및 지도, 학습자료 구비수준, 교육수준의 질적 강화 및 유지 노력수준 등이다.

UCL은 2008-2009학년도 HEFCE 대학평가에서 연구비 수주 1위를 기록했다. 8136만 파운드를 기록해 케임브리지(7426만 파운드)와 옥스퍼드(5475만 파운드)를 제쳤다.

저소득층에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도 영국정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2000년 중하위층 출신 로라 스펜서양이 옥스퍼드대 입학을 거절당한 뒤 미국 하버드대 장학생으로 선발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명문대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계기가 된다.

HEFCE는 2001년 명문가 자녀 중심인 사립고 출신이 명문대를 독식하는 관행을 깨기 위해 '참여 확대를 위한 프리미엄' 조치를 발표했다. 모든 대학에 대해 공립학교 출신학생의 입학비율을 공시토록 하고, 저소득층 거주지 출신 학생을 선발할 경우 그 수에 따라 추가로 재정지원을 해주도록 한 것.

최성주 교수는 이런 시스템은 교육과 연구의 몫이 대학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한다. 최 교수는 " 교육은 균등한 기회 보장과 공공성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영국인들은 생각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함께 지식인으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어떠한가. 몇 달 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대학의 등록금이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천717달러, 사립대학은 8천519달러로 미국(국공립 5천666달러, 사립 2만517달러)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이 말은 대학의 문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 405개 중 353개(87.2%)가 사립학교다. OECD 국가 중 대학 등록금은 2위다. 한국대학가의 현실이다. 민간에게만 맡겨진 고등교육의 앞날에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자유롭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학풍

UCL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학풍을 가졌다. 면담수업 역시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누리면서도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절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UCL 학생회관에 있는 Bar(선술집)이다. 이곳은 간단한 식사와 함께 알콜 도수가 낮은 맥주를 판매한다. 우리나라의 생활협동조합과 비슷한 곳에서 운영하는데 수익금으로 장학금도 지급한다고 한다. 학생들을 배려해 맥주가격도 시중가격의 반 정도다. 접근성이 좋은 학내에 그것도 대대적으로 할인된 가격이라면, 이로 인한 문제도 많았을 터. 그렇지만 이곳 학생들은 누군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자유로운 캠퍼스 환경을 제공하지만 학생 스스로의 절제를 요구하는 UCL만의 철학이 담겨있는 사례다.

이런 자유로운 학풍은 영국의 유명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음악을 낳았다. 콜드플레이의 멤버 크리스 마틴과 조니 버클랜드는 1996년 UCL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만난다. 둘의 음악적인 호기심은 Pectoralz라는 밴드를 결성하게 만들었고, 대학시절 동안 밴드활동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운다. 결국 콜드 플레이는 윌 챔피언, 가이 베리맨 이라는 UCL 출신의 두 멤버를 영입하고 1998년 결성된다. 그들은 2008년 680만 장의 판매고로 전 세계 앨범 판매량 1위를 달성했다. 콜드플레이는 UCL의 학생 활동이 낳은 최고의 스타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QS-Times 세계대학평가 순위 7위, 노벨평화상 역대 수상 동문 20명, 간디와 그레이엄 벨,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모교. UCL 앞에 붙는 화려한 수식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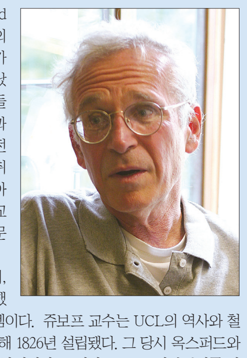
그러나 면담수업이라는 튼튼한 주춧돌이 없었다면 이런 화려한 금자탑을 쌓아 올릴 수 있었을까? UCL의 면담수업은 토론과 학습이라는 대학의 기본을 돌아보게 한다.

△UCL를 졸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동상

△UCL의 고풍스런 도서관은 방학중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찾아 책과 씨름하고 있다.

"140개국 사람들의 멋진 하모니가 UCL"

UCL 철학과 Arnold Zuboff 교수 인터뷰



UCL 철학과 건물, Arnold Zuboff(이하 아놀드 쥬보프) 교수의 연구실로 이어진 계단은 좁고 경사가 급한데다 삐그덕 거리는 소리마저 났다. 건물의 역사를 짐작케 해줬다. 멋들어지게 솟은 UCL병원과 세련된 공과대학 건물과는 사뭇 달랐다.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모습이라고나 할까. 취재단이 찾아간 쥬보프 교수와도 닮아 있었다. 교수생활만 30년을 넘긴 노교수지만 그는 한국 대학생기자의 질문에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했다.

그는 코네티컷대학에서 석사학위,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과 영국대학을 모두 경험한 셈이다. 쥬보프 교수는 UCL의 역사와 철학을 힘줘 말했다 "제레미 벤담에 의해 1826년 설립됐다. 그 당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일부 집단만을 위한 대학이었다. 그러나 UCL은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계급, 종교, 인종, 성별에 관계없이 입학을 허가했다"며 UCL의 설립취지를 역설했다. 이어 "벤담의 정신은 정말 다양한 인종과 국가의 사람을 UCL로 이끌었다. UCL의 힘도 이들의 조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CL의 구성원은 140여개 국의 각기 다른 국적을 가졌다. UN에 가입된 국가 192개국인 걸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다.

쥬보프 교수는 이어 면담수업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철학과 역시 면담수업이 중요한 코스이지만 다른 학과와는 조금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 그는 "철학과의 면담수업은 에세이 위주다. 튜터들이 작문하는 것을 봐주고 매주 그들의 에세이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 면담수업은 확실히 실력을 높여줄 수 있다"며 "그러나 간과해선 안될 것은 철학은 추상적인 학문이라는 것이다. 튜터들이 에세이를 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것 없이는 철학 공부는 깊이를 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철학은 프랑스어, 과학철학 등의 복수전공 코스를 가지고 있다. 쥬보프 교수는 학문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프랑스어, 과학철학 등의 통합과정은 기대되는 시스템이다. 개인적으로 모든 학문은 저마다의 가치가 있으며 되도록 많은 학문을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부과정은 여러 학문을 공부해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문 융합은 대학원과정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학문분야끼리 연계연구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가능케 한다. 인지과학, 과학철학과 같은 학문은 융합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학문이다"고 말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쥬보프 교수는 시종일관 겸손한 자세로 기자를 대했다. UCL이 세계적 대학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쥬보프 교수와 같은 자세 때문은 아니었을까.

"자기절제 없인 UCL 학위 딸 수 없다"

신린(수학과 3학년) UCL 한인학생회장 인터뷰

"UCL은 자유와 절제가 공존 대학이다. 학생회관의 주점은 자유로운 캠퍼스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러나 30%가 넘는 유급률은 자유로운 만큼의 학습량과 노력을 요구한다"

신린(수학과 3학년) 한인학생회장은 UCL을 이렇게 표현했다. '자유와 절제가 공존하는 대학'. UCL의 울타리가 없는 탁 트인 캠퍼스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캠퍼스의 경계가 없다보니 취재단은 길을 헤메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고든 스퀘어, 타비스톡 스퀘어 등 UCL 주변의 공원에는 한가로이 책을 읽는 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신린 회장과도 자연스럽게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 "맥주 한잔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신린 회장은 영국은 점심 먹으면서 가볍게 맥주를 마시는 경우가 흔하다고 얘기했다. "바로 옆 건물이 수학과 건물이자 학생회관인데요. 건물 내에 주점이 있어요. 맥주를 일반주점의 반 정도 가격에 팔아요. 자주 가는 편입니다" 학생회관엔 정말 2,3층으로 주점이 위치해 있었다. 음주 문제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신린 회장은 "아까 말했듯이 영국 사람들은 술을 가볍게 마셔요. 강권하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특히 학내 주점이라면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그게 지성인인 대학생의 자세겠죠. UCL은 그저 금기시 하는 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라고 말했다.

학교도 술을 먹지 않는 학생들을 배려했다. 주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학생회관 2,3층에는 주점과 동아리방 등이 자리하고 있다. 5,6,7,8 층에는 교수 연구실과 강의실이 있다. 서로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다르다. 자유로운 캠퍼스 환경을 제공하지만 학생 스스로의 절제를 요구하는 UCL만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볼수 있다. 자유로운 UCL의 분위기를 반영하 듯, UCL의 학생동아리는 300여개다. 학회 10월 초, 신입생 모집기간이 되면 캠퍼스는 동아리의 신입생 모집활동으로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한다. 한국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신 회장은 "학생활동이 활발하다고 해서, 공부에 소홀할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수학과 같은 경우 30% 정도가 유급이 된다. 공부하지 않으면 UCL의 학위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UCL에서는 스스로 절제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학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전언이다. 자유로운 캠퍼스 분위기를 누리면서도 학습이라는 본분에 소홀히 하지 않는 UCL인들. 정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이들이다.

INTERVIEW

▲ 지난 9월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열린 '중구 소년소녀 가장 돕기 후원의 밤'에서 미리 선보인 예소리의 판소리 연주

문화예술대학원 구성원된 예소리, 지난 10일 정각원에서 창단 공연 선보여

'무릇 음악이 주는 감동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므로 현사(賢士)가 범패를 노래하면 붉은 기러기도 좋아하여 날아가지 않았다고 하며, 명창(名唱)이 소리를 하면 푸른 새도 기뻐하며 나는 것을 잊었다고 한다.'

신라의 학자 김대문은 자신의 저서 '고승전'에서 우리 음악의 감동을 이렇게 서술했다.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한국음악의 멋을 동악에 선사할 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 대학 문화예술 대학원 재학생들 및 동문 약 175명이 모여 창단한 '동국 예소리'이다.

동국 예소리의 단장인 김방옥 교수는 "문화예술대학원 불교문화예술학과 한국음악 전공은 안숙선, 이춘목, 강정숙 등 인간문화재와 김영임, 김성수 등 명인 명창들을 배출한 저력을 바탕으로, 예소리는 많은 사람에게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문화유산을 전파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동국 예소리'는 정각원, 이해랑 예술극장 등의 교내 공연은 물론 전국 사찰 투어 연주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범패(梵唄)와 작법에 대한 강의식 공연(公演)도 기획하고 있다.

지난 10일 창단 공연에서는 범패 독창과 바라춤, 가야금 병창, 승무, 판소리, 민요 등 12개의 다양한 한국음악과 불교음악이 정각원에서 연주되었다. 예소리의 예술감독인 최종민 교수는 "경희궁 숭정전 건물인 정각원은 영조나 숙종이 늘 음악을 들으며 집무(執務) 하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공연 공간이다"며 "이곳에서 창단 공연을 시작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분의 연주시간 동안 공연해설까지 더해진 창단공연은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범패 공연과 바라춤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음악을 선사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이번 창단 공연은 연주뿐만 아니라 공연 연출(演出), 기획, 음향 그리고 홍보 까지 모두 문화예술대학원 구성원들이 맡아서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한다.

창단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연습에 몰두해 왔다는 예소리 단원들. 예소리의 단원인 박준곤 씨는 "예소리의 단원들 대부분은 국립창극단에서 활동하는 프로, 무형문화재, 대통령상을 받은 실력 있는 명창들이다. 재학생들과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동문들이 함께 하는 연습시간은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언급했다.

예소리는 국내사찰 공연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해외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최종민 교수는 "범패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불교계 내외에 알리고 국악의 멋과 흥을 최고수준으로 재현하는 예술단체로 거듭 나겠다"라고 포부(抱負)를 밝혔다.

'음악은 세계 공통어다'는 말이 있다. 음악은 언어에 국한되지 않기에 훌륭한 음악은 전 세계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소리가 선사하는 음악이 동악, 우리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같은 감동을 전파 할 수 있는 '문화외교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 친정엄마와 2박 3일
일정 : 10월 1일~11월 15일
장소 : 이해랑 예술극장
전석 44,000원

엄마 신드롬 '친정엄마와 2박 3일' 연장 공연

다음달 15일까지 이해랑 예술극장에서 마지막 연장 공연

'엄마를 부탁해' 100만부 돌파, 영화 '애자' 100만 관객 돌파…

2009년 문화계는 '엄마'를 소재로 작품들로 점령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초 연극계와 출판계에서 시작된 '엄마 신드롬'의 중심에는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있다. 지난 8월에 막을 내렸던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공연을 관람하지 못한 관객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연장(延長)공연에 돌입한다.

연극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잘나가는 딸이 간암에 걸려 친정으로 돌아가 친정엄마와의 2박 3일을 함께 보내는 이야기이다.

불황(不況)으로 경기 침체(沈滯)가 장기화되면서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마음을 잘 공략한 '친정엄마와 2박 3일'은 딸과 엄마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감나는 대사로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점이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더불어 노익장을 과시하는 배우 '강부자'와 불꽃같은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흥행(興行)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친정엄마와 2박 3일'이 엄마 신드롬의 불씨를 다시 살려, 마지막 앵콜 공연에서도 관객(觀客)들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

정달영 교수의 공연 100배 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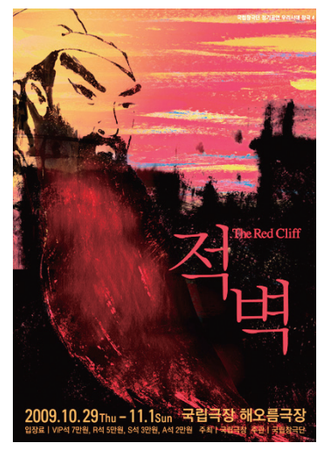
우리 시대의 창극 <적벽>

필자는 1998년부터 공연계에 몸을 담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부모님에게 효도의 일환으로 공연을 보여드리고 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Abraham H. Maslow)가 주장한 '인간욕구(欲求)계층'(Hierarchy of Human Needs)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하위 욕구의 충족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좀 더 높은 욕구를 추구(追求)하려는 동기(Motivation)가 생긴다고 한다.

즉,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가 충족되어야 보다 상위의 안전의 욕구(Safety Needs)를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욕구(Social Needs), 존중의 욕구(Esteem Needs),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 순으로 추구한다는 것이다.

1930년대에 태어난 필자의 부모님과 그 세대 중 공연관람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 분들이 얼마나 될까?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신 분들에게 하위의 생존(生存)과 안전의 욕구만을 충족하기에도 힘들지 않았을까 한다.

공연과 상관없는 일을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에게 예술적 완성도가 높은 공연보다는 당신들께서 즐겁게 보실만한 공연을 선택하였다. 최근 필자는 보여드렸던 공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고 부모님께 여쭸더니 '완판창극 수궁가'라고 하셨다. 2000년 5월 국립창극단이 제작하였으며, 당시에도 부모님께서 보시고 무척 재밌어하셨던 것이 기억에 남았다.



▲ 창극 적벽
일정 : 10월 29일~11월 1일
장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S석 3만원, A석 2만원
24세 미만 30% 할인

필자도 이듬해 난생처음으로 '완판창극 흥보가'를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뻔한 스토리'에 해학적(諧謔的) 요소로 살을 붙이고, 노래는 판소리로, 전통악기에 한국무용을 가미했는데, 유명 서양 뮤지컬보다 훨씬 재미와 볼거리가 풍부하였다.

위와 같은 부모님과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극 '적벽'을 추천하고자 한다. 창극 '적벽'은 국립창극단의 '우리시대의 창극' 시리즈 네 번째 작품으로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가장 남성적 소리로 알려진 '적벽가'에 극적요소와 대형 무대로 다시 태어났다. 본 시리즈는 창극의 대중화와 세계화란 명제 앞에 기획되었다.

추천 사유로는 먼저, 대형 뮤지컬과 오페라에 익숙한 젊은 관객들도 찬탄(讚歎)을 할 만큼의 역동적이고도 화려한 무대이다. 창극이 판소리를 뿌리로 한다고 해서 움직임이 작고, 노래와 음악이 단순하다거나 지루할 것이라는 생각이 일시에 날아갈 것이다.

다음으로는 올망졸망한 군사들이 보여주는 현실의 고단함과 해학이 펼쳐지는 장면이다. 이름 없는 군사들의 노래와 연희를 통해 민중의 고단함과 전쟁반대운동이 '군사설움타령'이나 '군사점고대목'이 극중극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진다. 해학적으로 그려지는 이 장면이 창극의 백미를 느끼게 할 것이다.

영상대학원 공연예술학과 교수

탈수 습기

한계를 넘어 거인으로!

내가 좋아하는 검도에는 경구의혹(驚懼疑惑)이라는 용어가 있다. 경구의혹은 다른 말로 사계(四戒)불리는데, 이 말은 검을 다루는 자에게 있어 경계해야 할 네 가지 마음을 일컫는다. 그 네 가지 마음은 공포, 의심, 혹하는 마음, 놀람 등이다.

내가 신문사에 들어와서 탈수습기를 쓰기까지 사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재, 보충취재 그리고 기사작성의 모든 과정에서 핀잔을 들을 때마다 나의 끝없는 무능력에 한탄했다. 또한 '내 부족함이 동료 기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란 강박관념에 괴로웠다. 취재를 할 때마다 횡설수설하는 나의 모습은 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내 선택을 믿었다. 마음속 희망의 하얀 분필을 들고 의학전문기자로 활약하고 있는 미래상을 그렸기 때문이다.

취재와 기사작성을 무한 반복하며 점차 노련해지는 나의 모습은 나스스로가 고된 수습 기간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신문사는 일주일 내내 취재로 반복되는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새로운 감각을 뇌에 불어 넣는 능력을 키워줬다.

이제 나는 수습기자에서 정기자로 한 단계 올라선다. 바꿔 말해 '세'라는 깨진 이름을 쓰던 내가 '오세진'이란 마법을 기사에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지금보다 더 '완벽한 기사'란 마법을 독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지녀야할 책임감도 커지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태산(泰山)보다 큰 거인(巨人)이 되겠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의 인생은 너무도 짧은 인생이기에, 현재의 나의 모습에 울적하기보단 새로운 가치관과 희망을 찾고 사소한 어려움에 멈추기보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세계를 넣고도 남을 크나큰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신문사에서 경험한 수습기간은 거인 오세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보며 기대하라. 정기자로 활동하며 점점 커져갈 거인 오세진의 모습을.

오세진 기자
viva5@dongguk.edu

무한한 가능성으로 최고의 변화를

소설 '어린 왕자'의 주인공은 어른들에게 모자가 아닌,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선보였다. 한 가지 시선만으로 세상을 보지 말라는 생텍쥐페리의 뜻 깊은 문장이다.

수습기자로 지내면서 기억나는 사건은 학생들의 총장실 점거 사건이었다. 학교와 학생이 소통(疏通)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아파했고 학교 측도 피해를 입었다. 본질적 원인은 입학정원관리시스템이었다. 수요가 낮은 과를 폐지하고 다른 과를 지원하는 것이 옳을까, 인문학을 배우게 해주고 과를 없애지 말라는 것이 옳을까?

무엇이 해답일지 고민하던 나는 한 선배를 통해 해답을 찾았다. 그 선배는 "한 곳이 무조건 옳단 생각 때문에 잘못된 걸 지적하지도 못하는 기사를 쓰지 마라"며, "편집장이 되겠단 각오로 능력을 쌓아, 너의 신문을 만들어라"라는 충고를 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너무 치우친 생각을 하지 않았나 되새겨보았다. 깨끗해진 눈으로 보면, 학교와 점거 학생들은 둘 다 옳은 점, 그른 점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 흑백논리(黑白論理)로 단두 가지의 길을 알아선 안 된다. 내게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고 그 것들은 동대신문사의 한 일원으로서 발을 내딛는 순간 내게 열린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한 가능성을 선택했다. 양측의 옳고 그름을 세세히 밝혀내고, 그 장점을 통합해서 모두의 동국대를 만들어가는 것을 돕겠다고.

6개월의 수습 생활이 이제 막을 내린다. 수습기자에서 정 기자가 되는 것은 좀 더 많은 가능성을 담을 수 있을 기사를 내밀 수 있다는 게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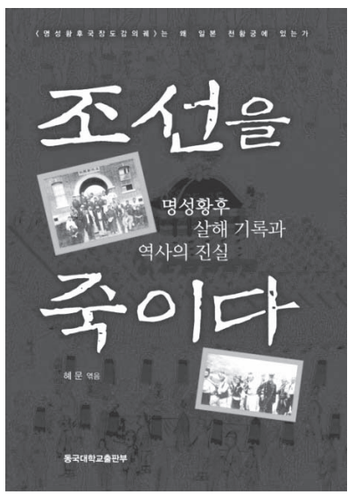
결코 작지 않은 변화다. 그 동안

항상 곁을 지켜준 사범대 사람들, 내 부족함을 많이 채워준 신문사 사람들, 우리 담당 기자라고 자랑스레 말해주는 출입처 사람들…. 내 변화는 앞의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준 것이다. 이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내가 만들 가능성에 대한 각오(覺悟)를 다져본다.

김미로 기자
miro@dongguk.edu

이주의 새책

명성황후 살해의 진실을 추적한 역저



조선을 죽이다
지은이 혜문 스님
펴낸곳 동국대학교출판부
304쪽 / 12000원

"다시 안중근을 생각한다. 안중근은 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는가에 대한 10가지 이유 중 첫째로 '우리나라의 국모를 죽인 죄'를 들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의거 100주년이 되는 올해, 그리고 경술국치(庚戌國恥) 100년에 즈음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이 된 을미사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일본에 의해 자행된 을미사변, 이른바 명성황후 살해사건과 관련된 일본 기록들을 발굴하고 완역해서 해제를 곁들여 역사의 진실을 밝힌'조선을 죽이다'가 출간되었다.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봉선사 혜문 스님이 일본 각지를 돌아다니며 입수한 자료들을 직접 번역해서 엮었다.

특히 '민후조락사건'과 '에이조 문서'는 사건의 진실과 관련된 민감한 기록들로 국내 사학계에서도 논쟁이 된 자료들인데 이 책은 그 전문을 발굴하여 수록하고 있다. 명성황후 살해에 직접 가담했던 당시 한성신보사 편집장 고바야카와 히데오가 쓴 수기 '민후조락사건'은 일본에서 사건의 배경과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회고록으로 평가받는다.

'에이조 문서'는 일본에서 소위 '조선왕비 능욕설'을 불러일으켜 국내 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나 그 동안 원문조차 제대로 입수하지 못했던 자료다. 혜문 스님은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서 이 문서가 포함된 '조선왕비사건 관계자료'를 찾아서 이 책의 부록에 전문을 영인하여 실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번역서나 학술도서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에 되찾아오기 위한 실천운동 과정에서 나온 대국민 중간보고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혜문 스님은 2006년 도쿄대가 소장하고 있던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47권의 국내반환에 앞장서서 성사시켰고, 현재 일본 황궁에 소장된 '조선왕실의궤' 72종의 반환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의 중심인물이다. 혜문 스님은 이 책에서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과 명성황후의 죽음에 대해 탐구하게 된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혜문스님이 역, 저술한 '조선을 죽이다'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모를 죽인 자'들의 고향과 무덤을 누비면서 그들이 남긴 유품과 기록을 찾아 이국의 곳곳을 만행(萬行)한 눈 푸른 납자(衲子)의 비장한 수행 기록이기도 하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한국 산악 문학의 정수(精髓), 한국백명산기

한국백명산기
지은이 김장호
펴낸곳 진선출판사
648쪽 / 36000원

고(故) 김장호 국어교육학과 교수가 10여 년 간의 집필 끝에 완성한 대작 '한국백명산기(韓國百名山記)'는 한국의 명산 100곳을 직접 답사하여 기록한 산학서(山學書)이다.

우리 산을 답사하고 산과 결합된 역사, 종교, 민속, 풍수, 언어학, 문학 등을 아우른 '한국백명산기'는 가볍고 실용적인 등산 안내서에 익숙한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또 이 책은 문사철(文史哲)을 아우르는 고고한 교양의 기품, 풍부하고 정밀한 자료 탐구, 스스로 헤쳐 올라 발로 쓴 경험 등이 생생하게 실려 있어 우리 산에 관한 종합정보 중 최상의 콘텐츠로 평가 받고 있다.

속도와 효율을 앞세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름지기 배움을 추구하는 과정과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새삼스럽게 일깨우는 귀감이 된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둘러봐도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는 푸근한 산이 눈앞에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산은 몸의 일부와도 같다.

'한국백명산기'는 바로 그 웅산(雄山), 진산(鎭山), 장산(壯山), 야산(野山)들의 놀임새와 앉음새, 품새를 소개하고 산세의 수려함과 역사 유적 등을 밝힌 답사기로 저자 고 김장호 교수가 10여 년 간의 집필 끝에 완성한 대작이다.

저자가 작고한 지 10년 후, 오늘과 내일의 독자가 그 진귀한 문장을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저자의 후학인 국어교육과 윤재웅 교수가 저자와 함께 산을 올랐던 기억을 더듬으며 역저를 정리 및 편집하여, 마침내 100개 산의 답사 기록이 담긴 '한국백명산기'가 탄생되었다.

고 김장호 교수는 선행(先行)의 자취를 더듬으며 선인들과의 교감을 체험하는 것이 자신이 등산을 하는 즐거움임을 강조한다. 또 이 책을 산악 에세이라기보다 산의 역사를 캐는 기행문에 가깝다고 말한다.

한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을 필두로 경기, 강원, 충청 등 도별로 명산을 가려, 한라의 허연 봉우리에서 발길을 멈추는 이 책은 '택리지' 등 고전 지리지를 훑어 모은 자료가 돋보이는 '등산가'가 아닌 '유산가(遊山家)'인 저자의 '산학서'이다.

이정민 기자
jeong0424@dongguk.edu

김혜숙 교수의 독서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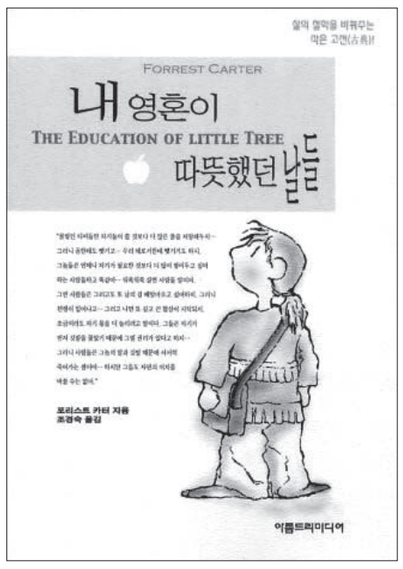
어린이 눈으로 바라본 모순 투성이 세상

사사로이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생으로 살아가는 긴 세월 동안 책들은 늘 나와는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추천하고 싶은"의 '가장'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그건 그리 만만한 상황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난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다. 그만큼 가슴 뭉클한 느꺼움으로 마음을 흔드는 여운을 가진 책이 있기 때문이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The Education of Little Tree) !

'작은나무'라는 인디언 소년의 삶을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쓴 포리스트 카터의 자전적인 이 소설은, 내가 인간이고 교사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 하게 만들어 주었고, 읽기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느끼게 한 작품이다.

부모를 잃은 다섯 살배기 어린 소년 '작은나무'는 체로키족인 할아버지·할머니와 함께 숲속 생활을 하게 된다. 어린 인디언 소년의 눈으로 본 삶과,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에서 배우는 자연의 이치와 삶의 방식,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특성이 독특한 말투로 정갈하게 쓰여 있는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연에 대한 감성적이고 시적인 표현을 접하게 되고, 할아버지와 작은 나무와의 유쾌하고 즐거운 대화에 빠지며, 할머니가 전해주는 여러 교훈적 이야기를 통해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인디언들의 지혜와 슬기의 생활 철학을 터득하게 된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지은이 포리스트 카터 저/조경숙 역
펴낸곳 아름드리미디어
336쪽 / 9000원

읽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가슴을 두드리고 영혼을 교육하는 힘이 있는 이 책을 읽다보면, 어느 새 자연의 품에 들어와 있고, 작은 나무와 동화되어 함께 울고 웃고 욕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한 장을 넘기면 익살스러운 이야기에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스미고, 또 한 장을 넘기면 가슴 저린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 장을 넘기면 내 영혼이 절절한 사랑과 순결함으로 따뜻하게 젖어드는 걸 느끼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오로지 인간적인 감동만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의 눈으로 보는 삶 속에는 환경과 인간 문제, 그리고 대공황기의 시공간적 맥락 까지 드러나 있으며, 특히 5살 난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소수자로서의 세상살이에 대해, 그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도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게 해 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오늘의 나를 돌아보게 해 주는 저력이 스며있다.

사실 난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다 베껴 써 알리고 싶다.

그만큼 자연과 삶, 정치인, 법, 종교, 이웃, 그리고 교육을 두루 아우르는 메시지를, 때로는 재미있게 때로는 감동스럽게 전하는 보석 같은 내용만으로 차 있기 때문이다.

내 주변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저 스쳐가는 모든 자연에 감동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감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영혼이 따뜻해지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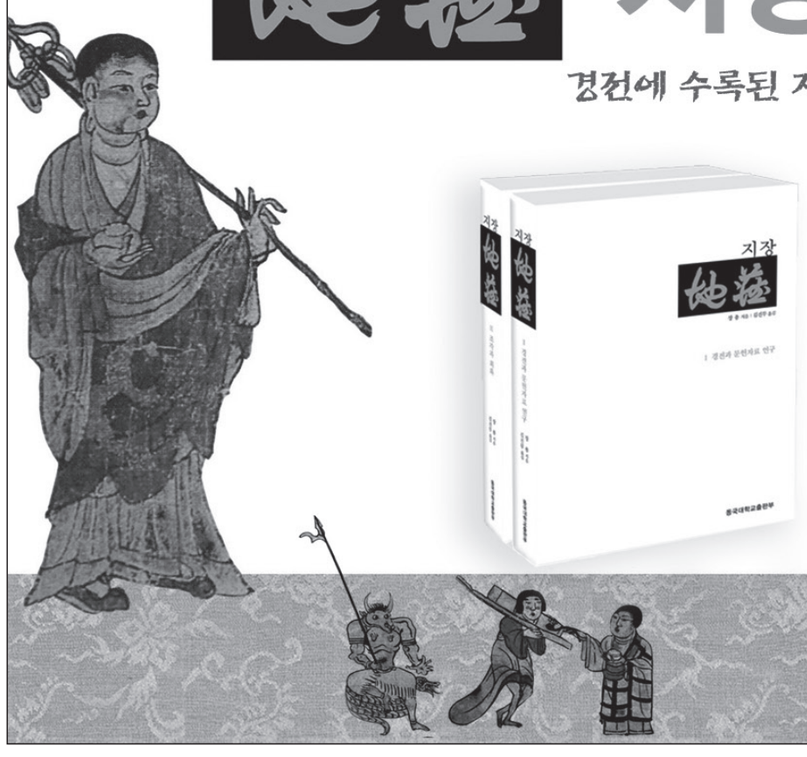
〈국어교육과 교수〉

책도 받고 사인도 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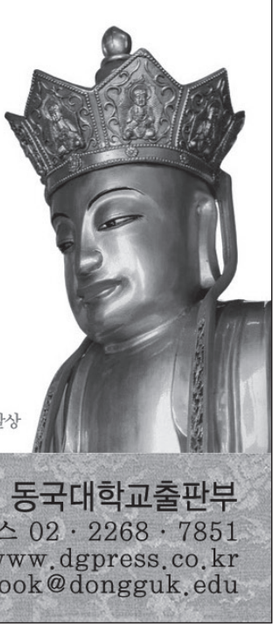
추첨 당첨자 명단 | 황인환 2006112130, 강새은 2008111109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독자 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장
地藏
경전 · 문헌자료 · 불교미술을 집대성한
지장신앙의 백과사전
경전에 수록된 지장보살에서 구화산 김지장보살에 이르는 중국지장신앙 대장정!



이 책은 중국사회과학원의 출판기금으로 출판된
『地藏信仰研究』를 완역한 것이다.
지장보살 관련 경·논·소 등 각종 문헌과 조각, 회화 그리고
그 영향관계에 있는 미술사 분야까지 집대성한
독보적인 지장보살연구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구화산 김지장보살상

지장 I · II 전2권
장충 지음 · 김진무 옮김 | 4X6배판 변형
I권 경전과 문헌자료 연구 22,000원 | II권 조각과 회화 27,000원 | 셋트 49,000원(하드케이스 포함)

동국대학교출판부
전화 02 · 2260 · 3482~3 | 팩스 02 · 2268 · 7851
홈페이지 http://www.dgpress.co.kr
이메일 book@dongguk.edu

달하나 천강에

지구(地球)를 구하는 배움

박 진 희
교양교육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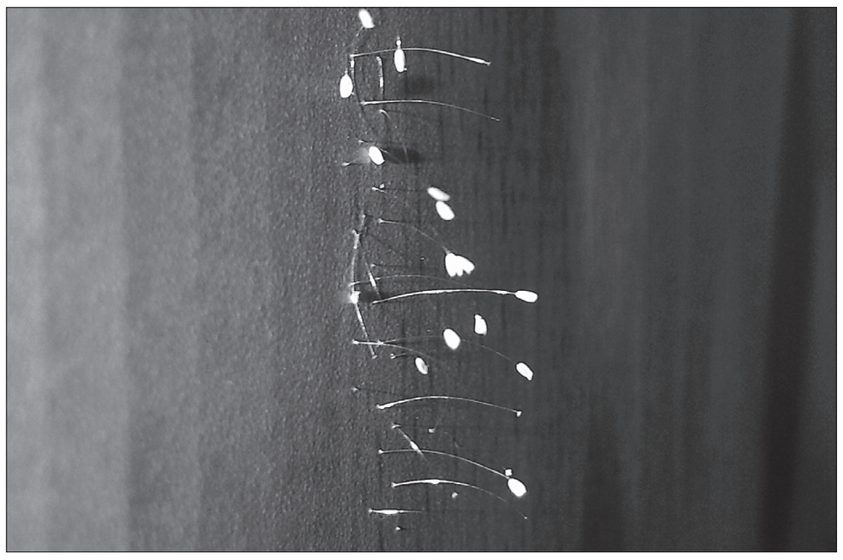
내 일신(一身)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데 웬 지구? 짧은 칼럼에 너무 거창한 제목이라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연일 쏟아지고 있는 기후변화(氣候變化)에 관한 보고서들은 이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 글로벌기후변화센터 연구팀에서는 최근의 탄소배출량(炭素排出量) 증가,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의 경제성장 전망(前望)등에 기초하여 2100년도에 지구 온도가 2000년보다 7.4도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생태계(生態界)는 파괴(破壞)될 것이고 수십억명이 목숨을 잃게 된다. 지구 생태계를 구하는 일은 이제 지구 상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제(課題)가 되고 있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그동안 환경운동 단체 등의 NGO 그룹의 노력, 이에 부응(副應)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政策)에 힘입어 기후 변화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抑制)에 성공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고자 태양광 등 재생(再生)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가구들이 늘어났다. 또한, 수송(輸送)에 쓰는 연료(燃料)를 줄이고자 지역 먹거리를 이용하는 가정들도 여기에 기여(寄與)했다. 돼지를 키우던 농부도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되어 온실가스 배출 절감에 일조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한 대학 캠퍼스는 이산화탄소 제로 캠퍼스로 전환(轉換)했다. 정부는 전기 생산 가구의 비용(費用) 부담(負擔)이 지나치지 않도록, 바이오디젤 생산 농부에 대해서도 석유업자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 개편(稅制 改編)등을 통해 지원했다. 이처럼 유럽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구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東岳에 있는 우리 역시 지구를 구할 책임(責任)을 지고 있다. 구하는 방법도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관(機關)이라는 대학 캠퍼스에서의 에너지 절약이 바로 그것이다. 빈 강의실에 전등이, 컴퓨터가, 에어컨이 커져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캠퍼스 내 행사(行事)에서 가급적 일회용(一回用)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지구를 구하는 방법이다. 조그만 실천이 내가 하는 전공으로 이어지면 새로운 녹색 기술을 만들어낼 수도, 녹색 세제 개편에 대한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캠퍼스에서의 배움은 만들어진 저장된 지식을 내 머릿 속에 옮겨 놓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당면(當面)한 문제들을 해결(解決)할 수 있는 해답(解答)을 함께 찾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바로 배움인 것이다. 기후 변화의 위기에 당면한 지구를 구하는 방법을 찾는 것 역시 캠퍼스에서의 배움의 과정이다. 이 배움은 우리, 지구에게 생명을 가져다줄 것이다.

사·진·에·세·이



지난달 18일 본관 3층 화장실에서 발견된 '우담바라'?

고유석 객원기자 tomatoagi@hanmail.net

동문칼럼

주 정 훈 연극영화 02졸
극작가겸 연극연출가

연극(演劇)이 사는 길

한국 연극계가 불황(不況)이다. 전 세계적 경기침체의 찬바람을 연극계 혼자만 피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일 터. 하지만 서글픈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 해도 연극계에 희망의 봄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연극이란 매체(媒體)는 근본적으로 비자본주의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연극계에 희망의 봄바람이 분다는 것은, 연극하는 사람들이 큰돈을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성 있는 연극들이 많이 만들어 지고 또 많은 관객들이 극장을 찾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좋은 연극은 드물고, 극장을 찾는 관객역시 적은 것이 오래된 현실이다.

그 원인은 상당히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 연극이 갖고 있는 사회,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과 공공차원의 지원 부족, 음악, 미술, 체육과는 달리 초중고 시절부터 교과목 과정으로 접해보지 못하는 것에 기인(起因)한 일반인들의 매체에 대한 낯설음과 고정관객층의 형성 부족 등은 외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내적인 요인에 있다. 그것은 한 마디로 연극인들이 '게으르고 무지하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연극인들이 스스로가 '예술'(藝術)을 하고 있다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 돈 벌고 출세하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거부(拒否)하고 '미'의 완성에 자신을 내던지는 일은 상당히 숭고崇高)한 일일 수 있지만, 예술을 하는 것 자체가 자랑이 될 수는 없다. 기왕 예술을 하려거든 잘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천재의 영감(令監)보다는 학습되고 연마(硏磨)된 완벽한 기술을 의미한다. 즉 기술이 완벽하면 예술이 되는 것이다. 연습을 하루 쉬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쉬면 내 동료가 눈치 채고 사흘을 쉬면 관객에게 들킨다는 정신으로 정진(精進)하는 연극인은 어디에 있는가. 극작, 제작, 연출, 연기,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연극선진국에 비해 30~40년 정도 뒤쳐져 있다.

그리고 연극인들은 언제까지 셰익스피어와 체홉과 브레히트만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인간의 본질을 탐구(探究)한다는 것에 집착(執着)한 나머지 변화의 흐름에 동떨어져 있다.

정치를 무시하고 경제를 외면하고 사회에 눈감는다.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셰익스피어가 오늘날에도 항구적(恒久的)인 가치를 가질 수 있지만, 한국의 현재를 이야기하는 연극은 왜 이다지도 드문가.

연극은 위대한 예술장르이다. 공공의 가치가 있다. 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연극인 스스로가 좋은 공연을 통해 이것을 증명(證明)해 내면 관객들이 찾아오고 외적인 장애요인들도 하나씩 해결될 것이다.

학생칼럼

김 세 일
물리학과 1학년

입학사정관제도와 그 미래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입학사정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많은 집중(集中)과 관심(關心)을 받고 있다. 단순히 학생부나 수능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評價)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계의 분야에서 뛰어난 소질, 잠재력, 창의성, 리더십 등을 갖춘 인재를 선발(選拔)하는 것이 본 전형(銓衡)의 취지라 할 수 있다.

대학교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대학 본연의 역할은 해당 분야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이 인재로 거듭나도록 양성(養成)하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過言)이 아니다.

하지만 기존의 입시 방법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에 경우 자신의 적성보다는 점수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학 후 전과를 하거나 학교를 중간에 그만두는 사례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점수에 의존한 신입생 선발의 대표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생에 대한 다방면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발을 하는 입학사정 전형의 도입과 확대는 바람직한 처사(處事)라 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대표적인 입학사정관 전형인 자기추천자 전형에서는 특강을 청강하고 보고서를 제출한 뒤 면접(面接)에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면접관이 질문을 한다. 또 지원자의 업적을 발표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주고 그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다양한 질문이 이어진다.

건국대학교의 경우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1박 2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밖에 한양대의 경우 별도의 3차 전형을 만들어 입학사정관들이 직접방문을 현지에 방문을 하여 최종 검증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학교마다 그 학교 나름대로의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의 전형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섣불리 판단(判斷)할 수는 없다.

학생들과 학무보들 사이에서 "각 대학별로 전형방법이 달라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의 전형방법이 일괄적으로 통일된다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오히려 하나의 수능시험처럼 자리를 잡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사교육의 팽창(膨脹)을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공교육만 받아온 학생들도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提供)한다"라는 명목으로 실시된 입학사정관 전형이 최근 면접대비, 포트폴리오 대행 등 오히려 고액의 사교육 시장의 형성으로 인해 본래의 취지를 위협(威脅)받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努力)하여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나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대학교에서 타 대행학원의 힘들을 빌려 소위 만들어진 인재를 걸러내는 과정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이야 말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 생각한다.

입학사정관 제도가 도입 된지 불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체계적인 평가과정이 정착된다면 향후 미국처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에서 입학사정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날이 올 것이다.

영상대학원 2010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모집

1. 일정

구분	일자
입시설명회	일시: 2009.10.22(목), 18:30~ 장소: 초허당세미나실(문화관 4층)
입학원서 접수	2009.10.27(화) ~ 11.02(월) http://dic.dongguk.edu
전 형 일 (구술면접/실기)	2009.11.07(토), 10:00~

2. 모집학과

구분	과정	모집학과	모 집 전 공
신입학	박사	문화콘텐츠	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	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연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
		멀티미디어	영상공학, 콘텐츠디자인, 컴퓨터음악, 게임제작
	석사	문화콘텐츠	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	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연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
		멀티미디어	영상공학, 콘텐츠디자인, 컴퓨터음악, 게임제작
		공연예술	연기 · 연출, 공연제작
편입학	석사	문화콘텐츠	콘텐츠기획, 콘텐츠시나리오
		영화영상	영화기획, 영화시나리오, 영화영상제작(연출, 촬영, 편집, 프로덕션디자인, 시각특수효과, 사운드디자인), 영화학
		멀티미디어	영상공학, 콘텐츠디자인, 컴퓨터음악, 게임제작
		공연예술	연기 · 연출, 공연제작

영 상 대 학 원

노트북 존 설치

중앙도서관에서는 노트북 이용자들의 이용공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노트북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일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트북 존(Notebook Zone)을 설치하였으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설치 목적
가. 중앙도서관 및 열람실에서 일반 이용자와 노트북 이용자 공간 분리
나. 노트북 이용자들을 위한 공간 확대
다. 노트북 사용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일반 열람자들의 불편 해소
라. 중앙도서관내 곳곳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노트북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2. 이용 시기 : 2009. 9. 28부터

3. 설치 장소

구분	층수	위치	좌석수	비고
자료실	각층	남측 검색 PC옆 열람테이블	48	
	3F	세미나실	16	세미나 없는 평상시
	1F	중구민 열람실	16	
휴게실 내 노트북 사용 가능	B2	세미나실	18	세미나 없는 평상시
증축 열람실	4F	다목적실 (설치중)	15	좌석수는 예상수치임
계			113	휴게실 내 노트북 사용 가능

4. 공지사항
가. 노트북 이용 공간 이외에서 노트북 사용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예정
(3회 적발시 도서관 출입 정지)
나. 4층 열람실 내 노트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원 콘센트 차단 예정
다. 노트북 이용에 관한 중앙도서관의 기본적인 입장은 노트북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의 공간을 분리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학내 모든 건물에서 노트북 사용이 가능한 만큼 중앙도서관에서는 위 원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 앙 도 서 관

중앙도서관 영화상영회 10월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영화상영회를 개최하오니 동국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 간 : 2009.10.05 ~ 3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2. 일 시 : 월 ~ 금요일, 14:00~
3. 장 소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멀內 A/V실
4. 상영영화 : 마요네즈 등 22편

테마	날짜	영화/감독	국가	런닝타임
가족영화, 어머니라는 이름의 자리	5일	마요네즈 / 윤인호	한국	114분
	6일	집으로 / 이정향	한국	87분
	7일	스텝맘 / 그리스 콜럼버스	미국	124분
	8일	어둠속의 댄서 / 라스 폰 트리에	미국	139분
	9일	열한번째 엄마 / 김진성	한국	106분
미지와의 조우, 외계인을 만나 본 적이 있나요?	12일	E.T. / 스티븐 스필버그	미국	110분
	13일	우주전쟁 / 스티븐 스필버그	미국	116분
	14일	저자와의 대화(문태준-느림보 마음)로 인해 영화상영 쉼	미국	153분
	15일	화성침공 / 팀버튼	미국	106분
	16일	지구를 지켜라 / 장준환	미국	117분
위대한 음악가, 음악만큼 드라마틱한 인생	19일	아마데우스 / 밀로스 포만	미국	158분
	20일	피아니스트 / 로만 폴란스키	독일	148분
	21일	샤인 / 스콧 힉스	미국	105분
	22일	레이 / 레일러 헥포드	미국	152분
	23일	불멸의 연인 / 버나드 로즈	영국	120분

5. 관람방법 : 직접방문, 안내자료 수령 후 관람(무료)
6. 문 의 : 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실(02-2260-3452)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영화제는 중앙도서관, 총학생회, 환경재단 그린아카이브가 공동으로 주최

중 앙 도 서 관

논단

학점 인플레 방치할 것인가?

한 상 준
중앙대학교 교무처장

지난 9월 교육과학위 소속 한 국회위원이 발표한 자료(資料)에 의하면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모든 대학들이 A학점을 남발하고 있으며 전공과목의 경우, A학점을 받은 비율이 50% 이상인 대학도 6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 및 장학단체의 성적 장학금 '커트라인'도 꾸준히 상승(上昇)하고 있어 만점인 평점을 받고도 장학금을 못 받는 웃지 못할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성적은 B학점조차도 낮은 평가로 인식될 정도로 심하게 인플레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가중되고 있는 취업난의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대학이 학생의 필요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학점 인플레를 경쟁적으로 조장(助長)해온 결과의 산물이기도 하다.

대학평가의 중요지표로 자리매김을 한 '취업률'(就業率)을 높이기 위해 제한(制限)없는 재수강의 허용, 취업용 성적표, 심지어 학점 포기제까지도 운영(運營)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학들의 현실이며 전공필수의 강제규정이 사라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학점을 취득하기 용이(容易)한 강좌(講座)들에 수강신청이 몰리고 해당학과의 전공과목보다는 교양과목위주로 수강계획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학문의 터전인 상아탑에서 실질적인 학업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마치 재테크를 하듯 '학점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도(過度)한 성적 인플레로 인해 학점이 취업시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서류전형의 최저기준인 학점기준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어 학점 인플레를 재차 부추기는 악순환(惡循環)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취업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감안(勘案)할 때 고학점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는 당연한 것일지 모른다. 또한 졸업 후 혹독(酷毒)한 경쟁의 스타트라인에 서야하는 학생들에게 대학은 우호적 후원자(後援者)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한 동량을 배출해야 하는 기본기능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의 대학들은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기 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만을 배출하고 있지 않은지 되물어 볼 때가 되었다.

이제라도 대학은 '부끄럽지 않은 A·B학점 학생'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학점 상승의 원인이 되었던 절대평가제를 폐지하고 전공교과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여 성적우수자보다는 전공교육 우수자를 양성(養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학점 인플레에 있어 기업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무엇보다 학점을 서류심사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도 학점 외의 다른 평가기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기업은 학점 외에 다양한 역량(力量)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 인재 채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는 젊은 인재들에 달려있기에 대학은 객관적이고 공정(公正)한 성적평가를 통해 4년간 취득한 개인의 학점이 인재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메아리

앞서가는 이의 발자취

김 활 란 기자
lan@dongguk.edu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이는 조선시대 고승 서산대사의 선시(禪詩)중의 한 구절이다. 서산대사는 어느 날 눈길을 걸어가다 먼저 지나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걷게 됐다. 하지만 앞서간 사람은 산천이 모두 눈에 묻혀 길을 잘못 들었던 사람이었고, 앞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갔던 서산대사는 낭패(狼狽)를 봤다. 이후 서산대사는 '눈 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뒷사람의 이정표(里程標)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의 글귀를 남기게 됐다.

▲지난 23일 중앙일보는 2009 대학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벌써 대학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 3주가 다 돼가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종합순위 27위라는 결과는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8 대학평가보다 못한 결과'라는 것이 전반적인 지적이다. 특히 평가지표 중 높은 가중치를 차지하는 교수 연구 부문에서의 큰 폭의 순위하락은 더 이상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대를 만들고 있다.

▲기자는 지난 7월 해외대학의 연구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싱가포르와 홍콩의 대학들을 취재한 바 있다. 취재 결과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치열한 연구 풍토와 교수들에 대한 완벽에 가까운 지원 시스템이었다. 특히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들의 연구 풍토는 놀라움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려워 보이는 정년보장 심사는 기본이었다. 교수들은 논문 쓰는 기계라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치열한 자세로 연구에 임하고 있었다. 또, 대학은 연구를 잘 하는 교수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 성과를 내지 않는 교수에 대해서는 일말(一抹)의 지원도 없다'는 철저한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지원이 먼저냐, 연구가 먼저냐 하는 논란은 없었다. 서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 대학평가에서의 교수연구부문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교수들은 연구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학교는 지원책에 앞서 연구하지 않는 교수들에 대한 패널티에 대해 말한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논쟁과도 흡사해 보인다. 싱가포르 대학이 서로 해야할 일을 묵묵히 하는 풍토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지원이 부족해도 졸업생들의 고시합격자 수등의 성과는 교수들의 연구성과와 비교하면 부끄럽기만 한 논란이다. 앞서 언급한 서산대사의 싯구는 인천(人天)의 사표가 될 사람들에 대한 경책(警責)이다. 스승으로서 그리고 학교의 행정을 책임진 행정당국이 좋은 발자취는 보여주지 못한 채 서로를 탓하는 모습은 민망하기만 하다. 누가 이들에게 장군죽비(將軍竹卑)를 들이대며 야단쳐 줄 것인가.

사설

'동국인'의 축제를 재건하자

지난 7, 8일 이틀간 가을축제가 진행됐다. 축제기간에는 동연제 주·야간행사와 목멱가요제, 몇몇 단과대들의 주점행사가 있었다. 과거 가을축제는 학생들이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되새기고, '동국인은 하나'라는 연대의식(連帶意識)을 키워나가는 시간이었다. 또한 각 단과대 학회들은 공부했던 것들을 갈무리하는 학술제의 기간이기도 했다.

올해 축제는 연예인 공연, 주점이 그 중심축이 됐다. 각종 동아리들과 우리 주변의 학우들이 무대에서 아무리 열심히 공연해도, 학생들은 꿔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다. 행사 마지막에 등장하는 연예인을 보기위해 서로를 밀쳐가며 무대 앞으로 나아가 열광적(熱狂的)으로 환호했다. 같은 학생들이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른 저녁부터 밤을 세워가며 술판을 벌이는 주점은 대학생활의 낭만이 아니라 추태(醜態)일 뿐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성방가에 지나가는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릴 뿐이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주점이라기 보단 해당 학생회만 즐기는 그들만의 축제가 돼 버린 셈이다. 학술제는 해당 학회만의 축제가 돼 버린 지 오래 됐다. 그 수마저 점차 줄어가고 있다.

어느새인가 가을 축제가 우리대학 학생들의 축제가 아니라 화려함, 자극적인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는 매년 열리는 축제가 지난해의 축제, 타 대학의 축제와 비교할 수 있는 점이 초청된 연예인 밖에 없을 정도다.

대학생들의 축제가 나름대로의 색깔을 잃어버린 채 연예인, 술로만 국한된 축제로 변질(變質)된 것은 단순히 축제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대학생들의 열정과 창의성, 연대의식의 실종이며 학문의 전당이란 이름에 오명을 남기는 것이다.

이제 연예인, 술만 남아있는 오늘날의 향락(享樂)적인 축제문화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지성과 의식 있는 대학생이라면 지금의 축제문화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우리대학을, 나아가 대학사회를 대표하는 축제문화를 재건(再建)해야 한다. 과거 가을 축제를 대표하던 다양한 학술제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공연이나 각종 행사들도 상업적, 향락적인 성격을 지양하고 보다 동국인들의 열정, 호기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창의성과 개성이 있는 기획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만평

백선아 기자 amy@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WEEKLY NEWSPAPER 1950년 4월 15일 창간
발 행 인 오영교
편 집 인 김용현
편 집 장 정웅재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열공국수 무료제공 및 매장연장 운영안내

1. 열공국수 제공안내
① 일자 : 2009. 10. 19(월) ~ 21(수) 3일간
② 장소 : 상록원2층 학생식당
③ 배식시간 : 오후 8시30분 ~ 오후 9시 30분까지

2. 상록원 식당, 매점 운영안내

구분	상록원 학생식당	상록원 분식당	상록원 매점	비고
주중	정상영업	정상영업	10/19(월)~21(수) 21:30까지 운영 10/22(목)~23(금) 21:00까지 운영	임대매장 정상영업
주말	10/17(토), 24(토) 10:00~14:00	10/17(토), 24(토) 19시까지 운영	10/17(토), 24(토) 19시까지 운영	
휴일	휴무	10/18(일), 25(일) 19시까지 운영	10/18(일), 25(일) 19시까지 운영	

3. 문의전화 : 02-2260-8949

학내 구성원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UNIV 동국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월 외국어교육센터 외국어강좌

1. 강의기간 : 10월 12일~11월 6일(주 4일 3주간, 중간고사 1주 휴강)
2. 접수 및 납부기간 : 9월 21일(월)~10월 8일(목)
3. 접수 방법 ①동국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 방문접수: 혜화관 1층
②전화접수: 02-2260-3468
4. 접수 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17시
5. 수강료 : 각 과목당 ₩90,000
6. 납부 방법 : 접수 후 계좌이체: 신한은행 140-007-481766 동국대학교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입금바랍니다. 레벨테스트가 필요한 학생은 영어클리닉 (02-2260-3474)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7. 강의실 : 추후 공고
8. 문의전화 : 02-2260-3468, 3470
9. 유의사항
가. 본 과정들은 정원 미달(6명 미만)로 폐강될 수도 있습니다.(폐강시 전액 환불)
- 개강후 3일 이내 환불시 수강료 80% 환불 가능 이후 환불 없음
- 출석률 100%일 경우 다음달 연속 수강시 수강료 20% 감면
나. 외국어교육센터 사정상 강좌 내용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좌 시간표

시간	매주 월/화/목/금 3주간				월/수 3주간
8:00~9:00	회화초급	회화중급	회화상급	Discussion & Interview Skill	
9:00~10:00	회화초급	Discussion & Interview Skill			
13:00~14:00	회화초급	회화중급	회화상급	Discussion & Interview Skill	
18:00~19:00	회화초급	회화중급	회화상급	Discussion & Interview Skill	
19:00~20:00	회화초급	회화중급	회화상급		

외 국 어 교 육 센 터

금주의 식단

동국관	월(10/12)	섭산적구이(2200)/모듬가스(3000)/치킨굴소스덮밥(2200)/스팸김치찌개(2500)
	화(10/13)	모듬장조리(2200)/치킨가스(2500)/불고기소스볶음밥(2200)/만두전골(2500)
	수(10/14)	치킨탕수(2200)/돈가스(2500)/낙지덮밥(2200)/뚝배기불고기(3000)
	목(10/15)	미니돈가스(2000)/스파게티(2500)/산채비빔밥(2200)/순두부찌개(2500)
	금(10/16)	제육순대볶음(2200)/치즈돈가스(3000)/중국식볶음밥(2200)/설렁탕(2500)
상록원	월(10/12)	갈비경단(2200)/돈가스(2500)/제육비빔밥(2200)/설랑탕(2500)
	화(10/13)	비엔나케찹볶음(2200)/상록원정식(3000)/산채비빔밥(2200)/참치섞어찌개(2500)
	수(10/14)	돈육콩나물볶음(2200)/치즈돈가스(3000)/닭갈비볶음밥(2200)/순두부찌개(2500)
	목(10/15)	깐풍육(2200)/치킨가스(2500)/팔보채덮밥(2200)/떡김치찌개(2500)
	금(10/16)	참치김치볶음(2200)/수제돈가스(3000)/산나물볶음밥(2200)/불낙전골(3000)
아리수	월(10/12)	낙지돈육고추장덮밥(2200)/김치치즈덮밥(2200)
	화(10/13)	치킨굴소스덮밥(2200)/제육비빔밥(2200)
	수(10/14)	불고기덮밥(2200)/카레라이스(2000)
	목(10/15)	산채비빔밥(2200)/돈삼겹두루치기(2200)
	금(10/16)	닭갈비덮밥(2200)/해물덮밥(2200)
혜화관	월(10/12)	돈가스(2500)/매운오삼볶음밥(2200)
	화(10/13)	치즈불닭솥밥(3000)/불고기야채비빔밥(2200)
	수(10/14)	피자돈가스(3000)/양송이덮밥(2200)
	목(10/15)	산나물고추장솥밥(2500)/치즈카레볶음밥(2200)
	금(10/16)	뚝배기불고기(3000)/참치김치덮밥(2200)

2009 가을 축제 사진 특집

동악의 가을 밤 열기로 붉게 물들다

가을 정취속 음악,춤,게임 어우러진 한판 놀이판 벌여
박병식 교수, 목멱가요제 사상 교수로는 첫 참가 눈길

지난 7, 8일 동연제와 목멱가요제가 열렸다. 제 25회 동연제는 낮에는 학생들이 뛰며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게임들이 주를 차지했고, 밤에는 힙합동아리 A-JAX, 마술동아리 MASIC 등 9개 동아리의 신나는 퍼포먼스가 이뤄져 학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제 5회 목멱가요제는 동악 내 최고 가수왕 12팀의 치열한 노래 경쟁이 이뤄져 과제와 시험준비로 지쳐있는 학생들이 동악 내 노래꾼들의 열정적인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사진=김윤수 yshero21@dongguk.edu , 오세진 기자 viva5@dongguk.edu

① 마술동아리 MASIC의 깃발 마술 공연 ② 목멱가요제 참가자의 열창 모습 ③ 상품을 타기 위해 커플 줄넘기 10회에 도전 중인 커플 ④ 동연제 주간행사 일부인 다트 던지기에서 학생이 중심을 맞추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⑤ 목멱가요제 첫 교수 참가자인 박병식 법학과 교수와 그의 제자들의 인터뷰 모습 ⑥ 시원한 샤우팅과 전자 기타의 어울림이 돋보였던 중앙 락(Rock) 동아리 Fealess Dawn ⑦ 라틴 댄스 동아리 SSID의 열정적인 살사 댄스 모습 ⑧ 동연제 주간행사 인 '스피트 킹' 현장, 시구 시속 112km를 넘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학생 ⑨ 목멱가요제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동국인

대상 수상자 안준호(국제통상3)군 인터뷰

짝사랑 추억 담긴 노래로 정상에 서다

2009 목멱가요제는 노래의 황제(皇帝)에 등극(登極)하려는 자들과 황제의 등극을 보려는 동악인들의 축제였다. 심사위원들은 동악 내 최고의 노래실력을 가진 12팀이 참가해 우열을 가리기 매우 어려웠다고 평했다. 그 치열한 경쟁 끝에 명예의 대상을 수상한 안준호(국제통상3)군을 만나보았다. 큰 환호와 갈채소리에 휩싸인 안준호 군에게 수상소감을 묻자, 상기된 얼굴로 "입상을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너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는 "2006년 1차 예선에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데도 친구, 선배들이 응원을 해줘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친구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렸다. 안준호 군에게 노래는 자신의 일상이었다고 한다. 그는 "언제나 노래를 흥얼거리고 노래방에서 일주일에 2번씩은 간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그가 부른 4MEN의 'Baby Baby'는 그가 짝사랑 했던 여자가 좋아하던 노래라고 한다. 군대에서 힘든 훈련을 견뎌내기 위해 부르던 이 노래가 추억(追憶)에서 우러난 감정이 담겨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완벽한 화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노래를 잘 불러 탈락할 줄 알았다"며 "쟁쟁한 경쟁자들 가운데 대상을 받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평가위원들이 후한 점수를 준 것이라며 겸손해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의 상금을 어떻게 쓸 계획이냐고 묻자 그는 "상금을 학과 발전기금에 기부(寄附)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아쉽게도 그는 내년에 휴학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학했을 때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가하겠다는 안준호 군. 언젠가 무대 위에 다시 서서 목멱가요제 황제로서의 면모(面貌)를 뽐낼 그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오세진 기자 viva5@dongguk.edu

첫 교수 참가자 박병식(법학과)교수 인터뷰

"목멱가요제 가을의 전설로 남고 싶다"

목멱가요제 본선에 교수님이 나타났다? 매년 목멱가요제를 관람한 학생들이라면 긴가 민가할 이야기로 여겨질 터이다. 그러나 학생들만의 축제 공연이라고 여겨졌던 목멱요제에 삿갓과 한복을 입고 깜짝 등장해 가수로서의 면모를 보인 교수가 있다. 바로 박병식(법학과) 교수다. 무대에 등장하기 전 소개 영상에서 그는 "동국 구성원이기에 목멱가요제에 참여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힌 후 화려한 춤사위로 등장했다. 수상식이 끝난 뒤 박병식 교수는 두 팔 가득 법학과 학생들이 준 꽃다발을 들고 기쁜 모습으로 무대를 내려왔다.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에 "두 학우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며 수상의 영광을 같이 참여한 학생들에게 돌렸다. 이어 참가 동기를 묻자, "학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제자들의 권유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라는 말을 자주했는데, 학생들이 이 말을 계기로 목멱가요제에 참여한다고 말하는데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이 참가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목멱가요제를 통해 교수님이 가을의 전설로 기억되길 원한다는 제자들의 말" 때문이었다며 환하게 웃기도 했다. 박병식 교수의 팀 이름은 '개봉박두'. 팀 이름이 가진 의미를 묻자 "개그계의 우뚝 선 봉우리, 그리고 박 교수와 함께하는 두 제자라는 말을 줄인 말"이라

며 "코믹스러운 컨셉으로 빠른 음악에 맞춰 춤을 연습하느라 힘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가 목멱가요제 나온 것을 계기로 많은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어울려 제2의 전설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열정은 목멱가요제의 특별한 전설이 됐다.

이신혜 기자 leeshin@dongguk.edu